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0년 12월호

리아호나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십시오, 4쪽

더욱 값진 선물, 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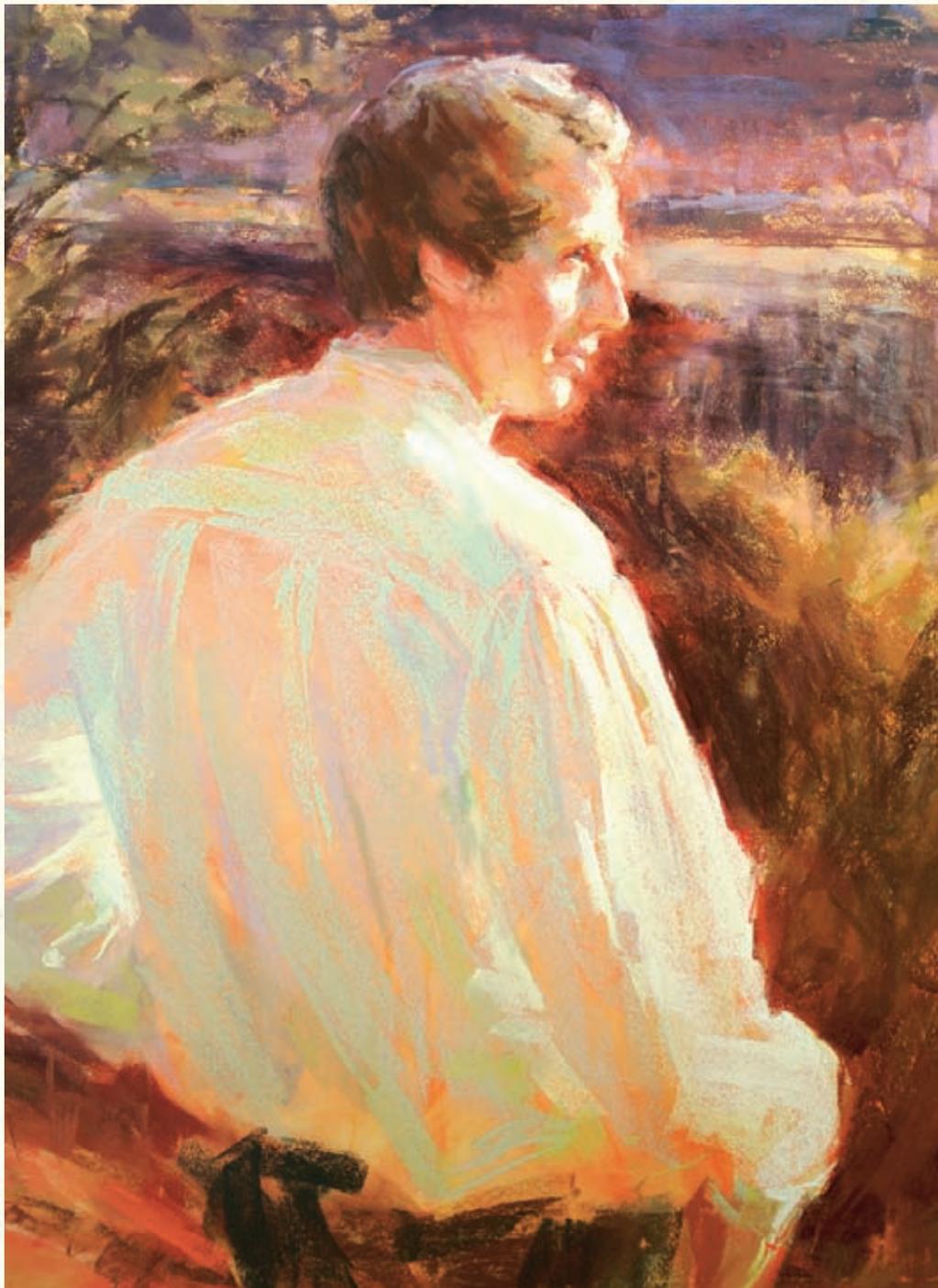
어둠 없는 밤으로, 50쪽

활동: 봉사할 기회를 구하며, 72쪽



제 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옛 목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구유 안에서, 성전에서, 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찾아봅시다.
 목자들처럼 이 큰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4쪽 참조





복사 금지

서쪽을 바라보며, 줄리 로저스

조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 존 테일러(1808~1887) 회장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물문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 이 교리와 성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 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웠느니라] ……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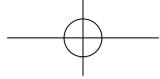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그리스도의 밭

포도원의 일꾼들, 제이 커크 리처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메시지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나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특집 기사

18 티모시를 위한 자장가

캐서린 클레멘트 폴센

구주께서는 아픔 대신 평강을 얻도록 나를 도와주셨다.



표지
앞: 왕의 탄생, 마이클 더대시.
뒤: 큰 기쁨을 알리는 소식-밤의 목자들, 마이클 더대시, 한정판 유화 및 인쇄물은 somersetfineart.com에서 볼 수 있음.

20 헨델과 메시아가 전하는 선물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헨델의 메시아 작품에서 얻는 일곱 가지 교훈

26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

닐 엘 앤더슨 장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신을 일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2 칠십인의 성탄절 전통

교회 본부 기사

8 작고 단순한 일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이앤 더블류 스토더드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도우십시오
마르코스 페르난도 도스 산토스

14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16 복음 고전: 늘 새로운 이야기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37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선물
조안 엠 올레니츠

38 후기 성도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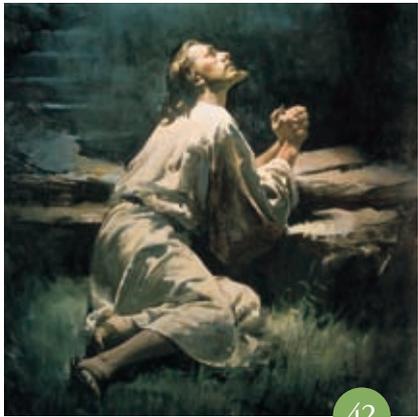
74 교회 소식

79 가정의 밤 제언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원에서 보내는 성탄절
래리 힐러



청년 성인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45 내 삶의 복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손흥욱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도움말: 선물

청소년



50

46 질의응답

“경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48 포스터: 사랑의 순수한 빛

49 우리들 공간

50 미대륙의 성탄절

웬디 케니

미대륙에서 구주의 탄생을 믿었던 이들은 그 표적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54 최고의 선물

에일슨 세일즈

성탄절 아침 이웃들이 밖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안에 머물며 기적을 기다렸다.

56 나는 어떻게 아는가:

달콤한 우유처럼

올란다 모랄레스

포사다스

49

어린이



64

58 비회원 초대 모임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와드에서 성탄절 축하 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결국 더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

60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 선물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선물

61 우리들 이야기

62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4 구유에 놓을 지푸라기

제이콥 에프 프랜드슨

마이클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구유에 지푸라기를 하나씩 더 넣을 수 있었다.

66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다이앤 엘 맹검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천사들이 기뻐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했다.

68 특별한 손님

로레인 리차드슨

우리는 선지자 조셉을 가정의 밤에 초대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0년 12월호, 제47권, 제12호
리아호나 0929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예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타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라스, 크리스토퍼 골드 이세, 요시히코 기꾸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울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라튼, 라켄 포터 곤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제이 오데카르, 조슈아 제이 파키, 채드 이 페라스, 켈빈 핀보로우, 리처드 엘 롬바,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윌렐

선임 비서: 로웰 듀셔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베베르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 킴 핀스타머,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유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자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30호, 제47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0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 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불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됩니다.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갈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10 Vol. 34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Liahona.lds.org

성인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가 메시아의 작곡가인 헨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일곱 가지 교훈을 나눈다.(20쪽 참조) 태버네클 합창단이 공연한 메시아의 일부를 들으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청년 성인



지난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한 청년이 작곡한 칸타타를 같은 스테이크의 청년 성인들이 공연했다.(23쪽 참조) 작곡가는 이렇게 말한다. "칸타타 선율과 가사를 통해 구주에 대한 저희의

간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칸타타 일부가 담긴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어린이

72~73쪽에 나오는 템플스퀘어 그림에서 봉사하는 모습 다섯 가지를 찾아본다. 그런 다음, www.liahona.lds.org에서 비슷한 게임을 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11, 12, 18

간증, 39, 62

개종, 56

경전 공부, 46

봉사, 7, 11, 41, 45, 54, 64, 72, 80

부름, 11

부모 본분, 12, 18

선택의지, 12

성탄절, 4, 32, 37, 38, 40, 50, 54, 58, 62,

64, 70

성신, 26

성전 사업, 7, 45

순종, 26

신앙, 26, 42, 50

영감, 20, 26

예수 그리스도, 4, 14, 16, 37, 48, 50, 58,

60, 62, 66, 70

우선순위, 45

음악, 20, 38

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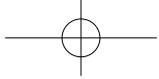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장애, 18

죄, 42

조셉 스미스, 39, 68

종교 교육원, 45

표준, 49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나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네 살배기 손녀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주고 있는데 손녀가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별들 좀 보세요!”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 우리 집 안에 있잖니. 여긴 별이 없단다.” 하지만 손녀는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별이 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천장에는 금속성 반짝이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지만 빛이 특정한 방향으로 반짝이를 비추자 정말 별무리가 펼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어린 아이의 눈이었지만 별은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방에 들어가 위쪽을 바라볼 때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악과 불빛과 축하연과 선물로 가득한 멋진 성탄 절기를 또 한 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구주의 이름을 받드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탄 절기 풍경 너머를 내다보아야 하며, 이 절기에 담긴 숭고한 진리와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 중 바로 그곳, 그들 가까이에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오래 기다려 온 약속된 메시아인 구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목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누가복음 2:11, 15)

옛 목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구유 안에서, 성전에서, 산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찾아봅시다. 목자들처럼 이 큰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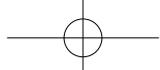
때때로 우리는 눈 앞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천장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한 할아버지처럼 때때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걷겠다고 성약을 맺은 우리는 마음과 가슴을 열고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 절기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멋진 시기입니다. 친절과 형제애를 담아 자애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절기입니다. 음악과 불빛과 파티와 선물을 즐길 때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의 화려함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존귀하신 평강의 왕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성탄 절기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기적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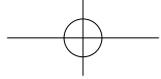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1. "주의 집중 활동은 흥미를 유발하고 반원들이 공과 주제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그림은 공과의 주요 개념을 강화하고 반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시각 도구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61, 181쪽) 처음에 주의 집중 활동을 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가령, 사진을 보여 주거나 경전 구절을 나눈 후 그것이 이 메시지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가족들에게 물을 수 있다.

2.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일상의 상황에 복음 원리를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 반원들이 복음을 실천할 때 받는 축복을 깨닫도록 돕는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79쪽) 이 메시지를 나눈 후 성탄절기 동안 구주에 대해 집중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나누어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한다.



청소년

선교사의 성탄절

로런 쿡

전 임 선교사가 되어 두 번째로 맞은 성탄절이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최근에 침례를 받은 회원의 집을 방문했다. 근사한 성탄절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었다.

우리는 별이나 선물, 예수님 탄생, 성탄절 트리 등 이 절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려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했다. 그런 후 니파이후서 19장 6절을 포함한 경전 구절을 몇 가지 읽어주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Once in Royal David’s City(그 옛날 다윗성에)”(*영어 찬송가*, 205장)를 불렀고,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영화를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성탄을 경축하며 보내는 대신 단출하게 지낸 성탄절이었지만, 구주에 관한 간증을 나누면서 주님과 주님의 탄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전임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며 보내는 마지막 성탄절임을 알았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아들을 증거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6 리아 호나

어린이

구주를 찾아보세요

우 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성탄 절기에 구주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참조 성구를 찾아보세요. 각 성구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고, 그 그림 아래에 성구를 적어 넣으세요.



마태복음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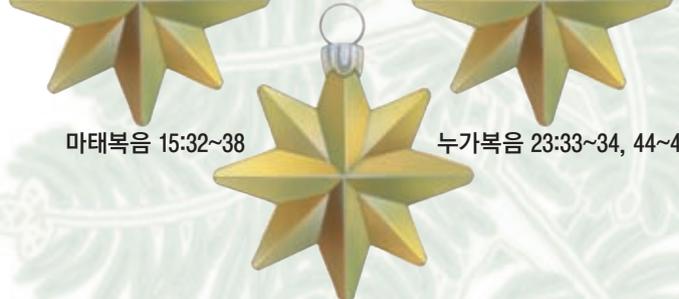
누가복음 2:46



누가복음 8:49~55

마태복음 15:32~38

누가복음 23:33~34, 44~46



요한복음 20:11~20



원문: 신화: 폴 만; 장시문: 신화: 조. 북문: 레스: 010101의 영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림: 그레고리 웅스 © 1900; 성전에 있는 소피 예수. 그랜트 롱니 콜로슨 © 19; 십자가에 못박힘. 해리 앤더슨 © 19; 삽화: 폴 만; 그가 살아나셨고, 벨 피는; 세 명의 동행 박사. 폴 만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과 가깝거나 먼 친척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가족들을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구원 의식을 행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성전은 기대만큼 붐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켜져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2~3 참조)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면 개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조상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주님 앞에 우리의 합당성을 증거하는 성전 추천서를 지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추천서를 지닐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도움을 받아 합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 자격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죄가 실재하며, 온전한 회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면, 시련 속에 있을 때 위안을 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영을 받드시 지니게 됩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조상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상호부조회 일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줄리 비 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성구에서

말라기 4:5~6; 고린도전서 15:29;
베드로전서 3:18~19; 교리와 성약
110:13~16; 128:24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를 방문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자매들이 조상을 찾고, 조상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도록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각 자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 가족 역사 사업으로 신회원과 다시 활동화 되는 회원과 저활동 회원들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한다.

2.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시련 속에서 위안을 받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도 받았던 적은 언제인가?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일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13)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초창기부터 이 위대한 사업을 도왔습니다. 1842년 나부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형제들을 돕고자 한 사라 엠 김볼 자매의 소망을 발단으로, 한 무리의 자매들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자매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선지자는 신권의 모형에 따라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나부 성전 건축을 계속 도왔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유타에 정착하고 8년이 흐른 뒤인 1855년에 엔다우먼트 하우스가 세워졌습니다. 1866년, 브리검 영 회장은 최초의 상호부조회 초대 구성원이자 당시 상호부조회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스노우 자매와 다른 자매들은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그 후 세인트 조지, 로건, 맨타이 성전이 완공되자 이 자매들은 각 성전을 두루 다니며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주

1. Mary Ellen Smoot, “Family History: A Work of Love”, *Ensign*, 1999년 3월호 15쪽.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성탄절 추억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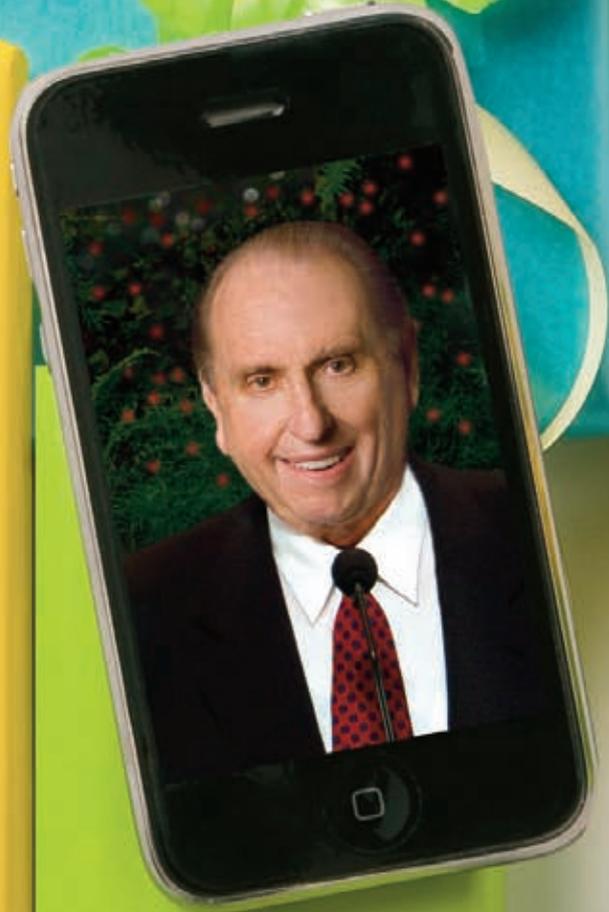
저희 집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는 은색 모조 손잡이가 달린 작은 검은 지팡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때 먼 친척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70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지팡이를 간직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와드 성탄절 연극에서 세 동방 박사 중 한 명으로 등장하는 특권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큰 두건을 두르고, 어깨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피아노 의자 덮개를 걸친 채, 손에는 검은 지팡이를 들고, 대사를 읊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 저는 세 “동방 박사”가 고개를 들어 별을 올려다보고, 무대를 가로지르는 여행 끝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가져온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일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배반할 사악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떠났다는 사실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 성탄절 지팡이는 여전히 제 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맺은 성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중한 선물”,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3~4쪽에서 발췌.



일정

20 10년 12월 5일에는 제일회장단의 성탄절 노년의 모임이 열립니다. 제일회장단이 말씀을 하고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선사할 것입니다. 방송 시간과 시청 지역은 해당 지역 신권 지도자나 ld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www.broadcast.lds.org에서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8 리아호나



가정의 밤의 힘

남편인 루이즈 안토니오와 나는 가정의 밤이 우리 가족을 복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큰 간증이 있다.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의 밤은 우리와 네 자녀에게 많은 변화를 선사했다.

가정의 밤을 하면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는 아들 레난이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할 때였다. 큰 딸 신시아와 둘째 딸 릴리안은 레난의 여덟 번째 생일 전까지 한 달 동안 공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남편과 나는 딸들이 침례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몹시 흐뭇했다. 그것은 딸들이 침례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르친 것과 같은 공과였다. 4년 후에 레난은 누나들의 모범을 본받아 여동생 엘렌을 위해 침례에 관한 공과를 가르쳤다.

가정의 밤은 자녀들이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도록 우리와 자녀들을 계속 축복해 주었다. 가정의 밤은 자녀들이 간증을 유지하고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들은 이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으며 딸들은 성전에서 결혼하여 자녀도 두었다.

우리에게는 가정의 밤이 가장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간증이 있다. 가정의 밤을 꾸준히 하라는 선지자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삶에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한 지침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가정의 밤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축복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왈키리아 산타나 카이로, 브라질



성탄절 이야기

나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 밖에도 경전 여러 부분에 기적과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달 개인 경전 공부에 다음 성구를 포함시켜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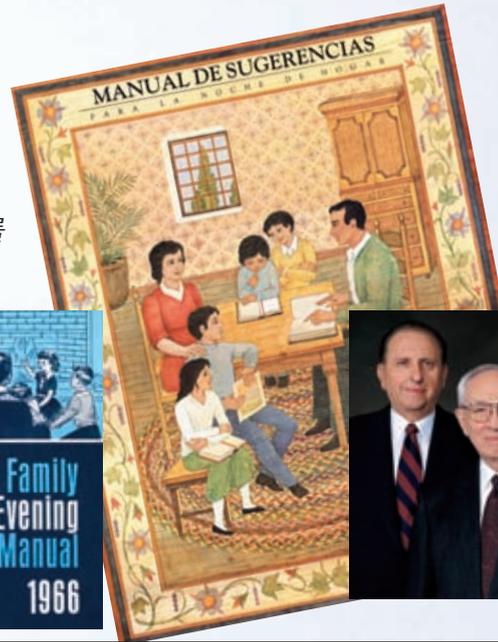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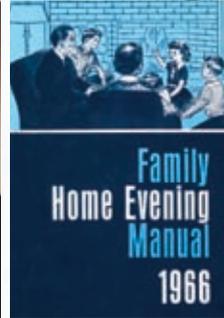
구약전서	신약전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이사야 7:14; 9:6~7	마태복음 1~2장	니파이전서 10:4~6; 11:13~21	교리와 성약 76:41	모세서 5:57
미가 5:2	요한복음 1:1~14	앨마서 7:9~13 힐라맨서 14:1~9 제3니파이 1장	교리와 성약 93:1~4	

사진 촬영: 앨런 시 앤더슨, 동화 박사 그림, 출판 © 1989, 예수님의 탄생의 길 허먼리히 홀도호, 덴마크. 일러스트에 있는 프라테릭스모르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복사 금지, 섀도우, 베스, 엠, 후타키



가정의 밤 시간

교회 회원들에게 월요일 밤은 곧 가정의 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다음 연대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1909년	1915년	1935년	1965년	1970년	1985년	1999년
유타 그래닛 스테이크에서 공식적인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과 제일회장단 보좌들이 교회 부모들에게 일주일의 한 번씩 자녀들을 모아 “가정의 밤[Home evening]”을 하도록 요청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부모들에게 “가정에서의 실패는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다. ¹	처음으로 공식 가정의 밤 교재가 나왔으며, 1984년까지 매년 개정판이 나온다.	제일회장단이 월요일 저녁을 가정의 밤 시간으로 정하다.	더 많은 참고 자료와 응용법이 담긴 가정의 밤 자료집이 소개되다.	제일회장단이 공문을 통해 회원들이 월요일 밤에 와드나 스테이크 활동을 계획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서는 월요일 밤에 지역 사회 활동을 하지 말도록 일깨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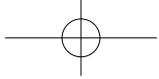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¹ David O. McKay, J. E. McCulloch의 말 인용, *Home: The Savior of Civilization*(1924년), 42쪽; Conference Report, 1935년 4월, 116쪽.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족을 위한 가정의 밤 제언

- 경전이나 상호부조회 또는 신권회 교재, 또는 교회 잡지 기사를 공부한다.
-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 와드나 지부 회원들을 초대하여 함께 가정의 밤을 한다.
- 멀리 있는 가족이나 또는 와드나 지부에서 선교 사업을 나간 회원에게 편지를 쓴다.
-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고 요양 시설을 방문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자원한다.

왼쪽부터: 유타 그래닛 스테이크 건물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관, 조셉 에프 스미스, 에이 신포브레다. 사진 촬영: BOYART STUDIOS; 1985년 교재 표지, 필리스 루크. 사진 촬영: 제드 에이 콜러브. 일러스트: 미스 앤 휘터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다이앤 더블류 스토더드

어린 자녀 넷을 키우느라 내 생활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전화를 걸어 남편과 나에게 만날 수 있는지 물으셨다. 그리고 뜻밖에도 내게 상호부조회 회장 부름을 주셨다.

나는 감독님께 기도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름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부적절하다는 느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가득해 이를 동안 울다 말다를 반복했다.

그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문 교사 한 명이 전화를 해서 방문을 오겠다고 했다. 방문을 온 교사는 교회 초기에 유타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에머 소머빌 맥콩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맥콩키 자매님이 속한 와드에는 갓난아기를 비롯하여 자녀를 여러 명 둔 한 자매가 있었다. 이 가난한 자매를 위해 맥콩키 자매님은 음식도 갖다 주고 아이를 돌보는 일도 도와주려고 매일 그 집을 방문했다.

“맥콩키 자매가 유난히도 무겁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든 맥콩키 자매는 한 아기를 목욕시키는 꿈을 꾸었다. 그 아기가 바로 아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고 생각했다. 아기를 무릎에 올렸을 때에는 거의 감격스러운 느낌에 압도되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온 몸을 에워쌌다. ……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런 말씀이 들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 마음과 영혼은 위안과 화평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며, 내가 와드 자매님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시고 모든 책임을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내 가족을 돌보면서도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기만 하다. 영감을 받아 그 시기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 준 방문 교사에게도 감사한다. 그때 이후로는 결코 부름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때 그분은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힘과 능력을 축복해 주신다는 간증을 얻었다.

■

주
1. Bruce R. McConkie, "Charity Which Never Faleth," Relief Society Magazine, 1970년 3월호, 1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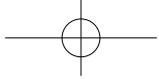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현명하게 봉사하십시오

지도자 부름과 가족, 직장, 기타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시하는 여섯 가지 제안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1.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평의회, 회장단 모임, 지도자 모임에서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2. 혁신적으로 일하십시오.** 교회 정책과 원리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 3. 책임을 위임하여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도자는 권고하고 조언하며 동기를 부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4.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따라서 각각 다른 우선순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일을 “지혜와 질서 안에서”(모사이사야서 4:27) 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십시오.
- 5.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역량을 깨닫고, 일하는 속도를 조정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돕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우선순위를 매기십시오.
- 6. 새로운 회원의 필요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새로운 회원들이 복음을 배우고, 다른 회원들과 친숙해지고, 의미있는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엠 러셀 블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 지혜로우라”, *리야호나*, 2006년 11월호, 18~20쪽.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의지를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르코스 페르난도 도스 산토스

하 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삶과 그 중대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며 가르침을 주셨고 그들이 지상 생활에 대해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보이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칠 특권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태어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을 가르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할 임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모범을 따른다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배우는 과정에 있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이 한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그 상황에 뛰어들어 자녀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부터 인내심 있게 선택의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계명을 주시고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 규정하시며, 선택의지를 행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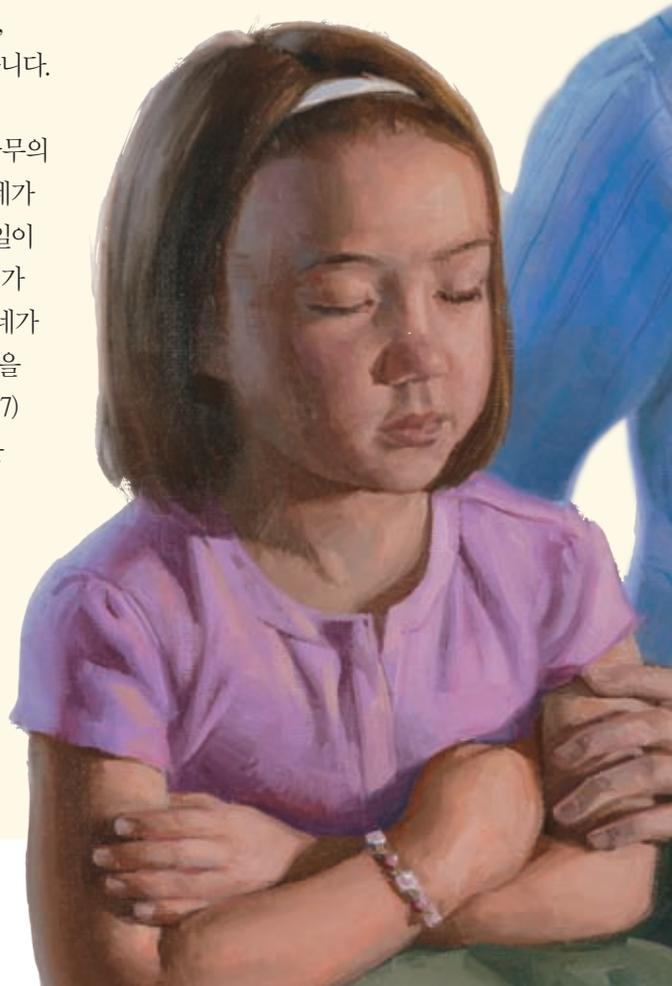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하니라.”(모세서 3:16~17)

강요하지 않고도 자녀가 계명을 지키도록 독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경전으로 복음을 가르친 후,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말과 모범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복음대로 생활할 때 받는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이지만 우리도 약점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시오.

때때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희망이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능과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될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구원할 권능은 없지만 그들을 위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화: 마이클 피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강요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자유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선택의지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분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주의 속죄 희생과 회개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모세서 5장 참조)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가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참된 회개를 통해 자녀가 기쁨을 되찾으리라는 소망과 기도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더욱 풍성히 가득 차는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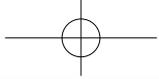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싶지 않으며, 무엇을 믿고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몇몇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의지를 총명하게 사용하려면 진리에 대한 지식, 즉 사물의 현재에 대한 지식(교리와 성약 93:24 참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도덕적 수양”,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07쪽.

축복을 받고 부모로서 더 큰 성공을 맛볼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1~46 참조)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불멸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물려받았습니다.(요한복음 10:17~18 참조) 어머니로부터는 필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 피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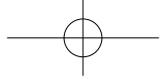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서 필멸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 천사가 이르되 ……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복음 1:26~27, 30~32, 35; 또한 니파이전서 11:16~21; 앨마서 7:10 참조)

마태는 요셉에게도 한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 이런 말을 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태복음 1:20~21 참조) 마리아와 요셉 모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예수라 불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했음을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누가복음 1:39~45 참조) 엘리사벳은 이미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성신은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 로버트 티 베러; 사진 삽화: 이담규; 위시 보라의 부분 확대. 리즈 레몬 스텐들.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예언하는 레이맨인 사무엘. 아놀드 포러버그 © FR;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르다, 로버트 티 베러



4.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으로 희생을 드렸습니다.(모세서 5:7)



5.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아야]”(모세서 6:52)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또한 교리와 성약 93: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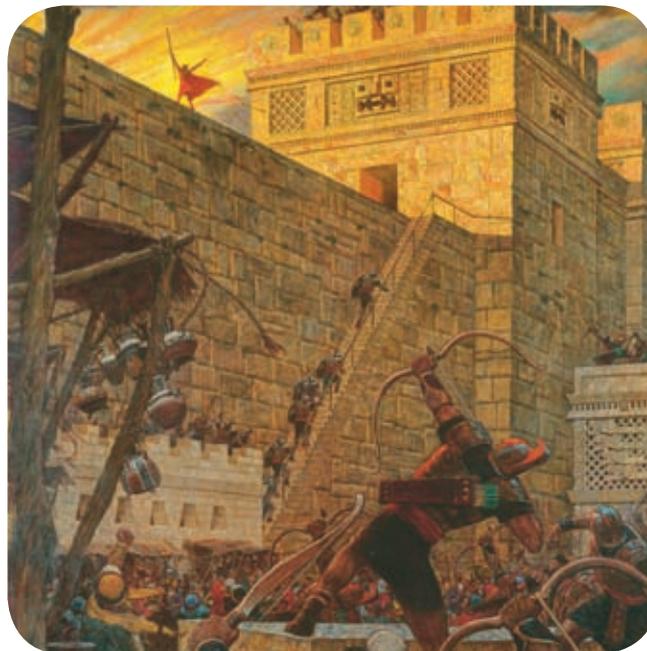
1. 배 안에 있던 구주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르[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마태복음 14:33)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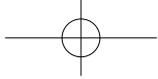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3.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요한복음 11:2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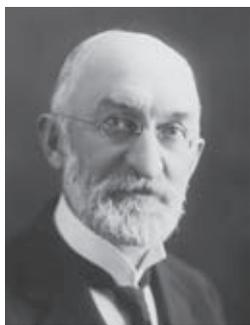
6. 구주께서 태어나시기 5년 전, 미대륙에서는 레이맨인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시려 오시느니라.”(히라맨서 14:2)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52~53쪽; 신앙에 충실함(2004년) 131~134쪽; 리차드 시 에즐리, “The Condescension of God”, Ensign, 2001년 12월호, 16~21쪽을 참조한다.



늘 새로운 이야기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이 당면할 운명에 영향을 미친 분은 없습니다.



교회 제7대 회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는 1856년 11월 22일에 태어났다. 그는 1882년 10월 16일, 25세 나이에 사도로 성임받았으며, 1918년 11월 23일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다. 다음 기사는 1940년 12월호, *Improvement Era*, 713쪽과 765쪽에 실린 "Story of Old"에서 발췌한 것이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되었지만 늘 새롭습니다. 그분의 삶과 성역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제 영혼을 채우는 기쁨과 평화, 행복과 만족감이 커집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과,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생각할 때면 늘 새로운 묘미를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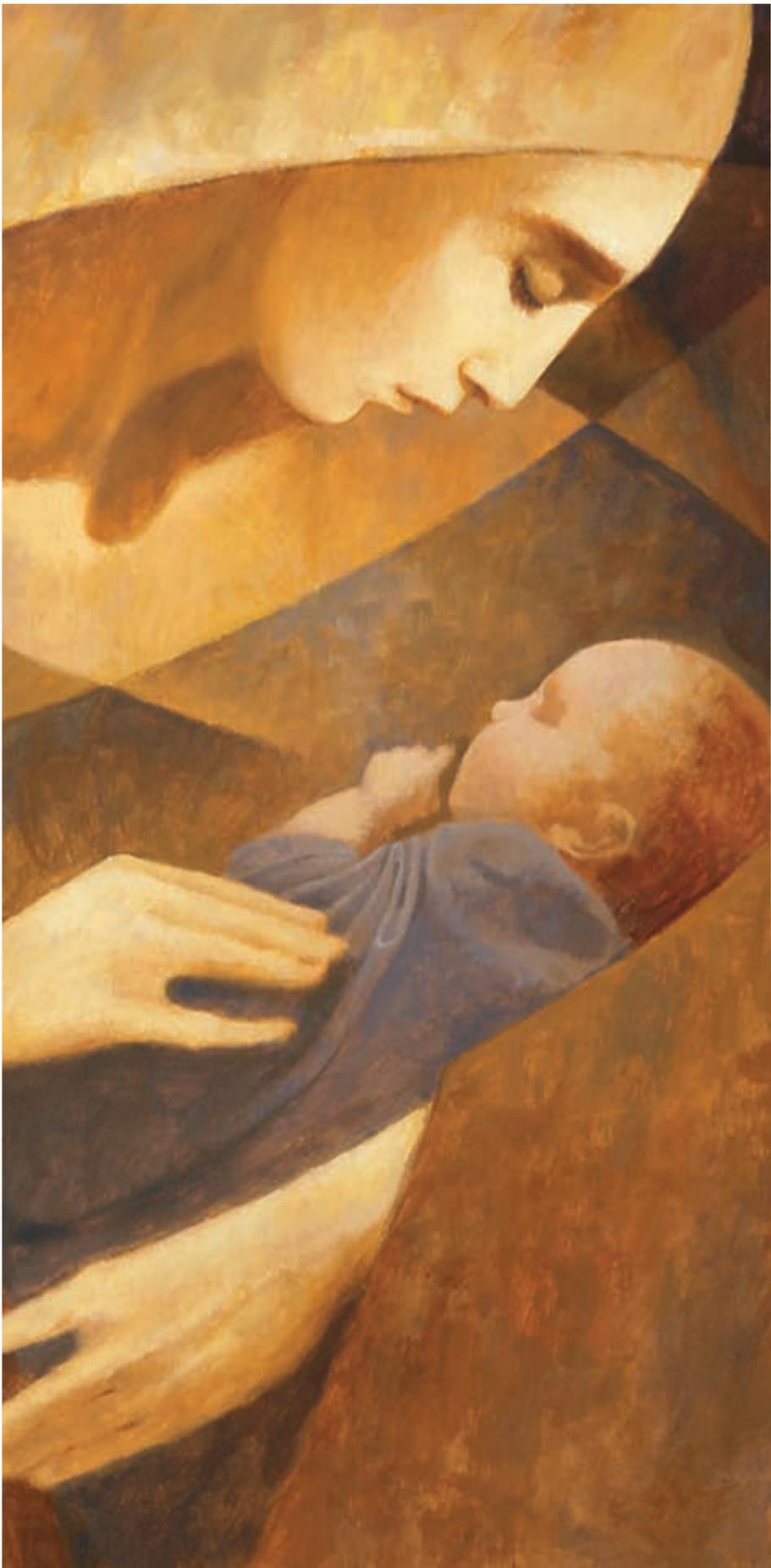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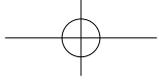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이 당면할 운명에 영향을 미친 분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은 미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어부들을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1,900년 이상이 지났고 숭한 전쟁과

혼돈이 있었지만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분께서 이루신 신성한 업적에 대한 간증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셨으며 인간에게 다시 복음을 알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하는 사업이 신성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저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이 결코 어둠에 물들지 않고, 곧은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며, 나이가 들면서 이해력이 증대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깃든 빛과 영감이 제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이해를 밝혀 주며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굳건하고 충실하게 봉사하도록 지켜 주기를 온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참여하는 사업이 신성하다는 간증을 얻은 후기 성도들은 매일 우리 삶에 질서를 세움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후기 성도보다 축복받은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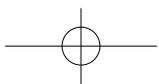
어머니와 아이, 제이 커브 리저츠, 사진: 셉퍼, 크리스티나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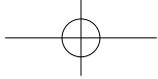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더 많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철자, 구두점, 대문자를 현대어법에 맞게 수정.





티모시를 위한 자장가

2000년 전에 태어난 또 다른 아기가 가져다준
선물들을 떠올리기 전까지 나는 힘겨워하는
아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캐서린 클레멘트 폴센

분 만실 간호사가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말을 했을 때를 기억한다. “아기가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상태가 극도로 위태로운 신생아를 살리기 위해 분만실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을 술하게 경험했지만 그건 간호사 입장일 때였다. 신생아를 소생시키고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운송팀이 아기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아들의 손을 잡기 위해 인큐베이터 문으로 손을 뻗는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다. 그곳에서 남편 앤드류는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티모시가 커다란 복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수술을 받으면 티모시가 괜찮아질 것이고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렸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그려보았다. 다만 아이의 귀여운 상처를 보게 되면 잠시 겁에 질렸던 순간을 떠올릴 것이다.

3주 후 같은 병원 회의실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티모시에게 심각한 인지 능력 지체와 언어 장애를 가져온 뒤 급기야는 발작을 일으킬 뇌기형에 대해 설명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방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티모시가 영양공급 튜브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티모시는 태어났을 때보다 1.4 킬로그램 빠져서 수척한 데다 빈혈이 있었고 자극에 대한 반응도 거의 없었다. 젖병을 물리지 않던 티모시는 그나마 약하게 빨다가 내용물 때문에 숨막혀 했다.

아기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의구심이 들었다. 이 짐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부서지는 것만 같았다. 매일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큰 아이들과 함께하며 평화로운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면 아기의 복지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혔고, 솔직히 말해, 영망진창인 새로운 생활에 대해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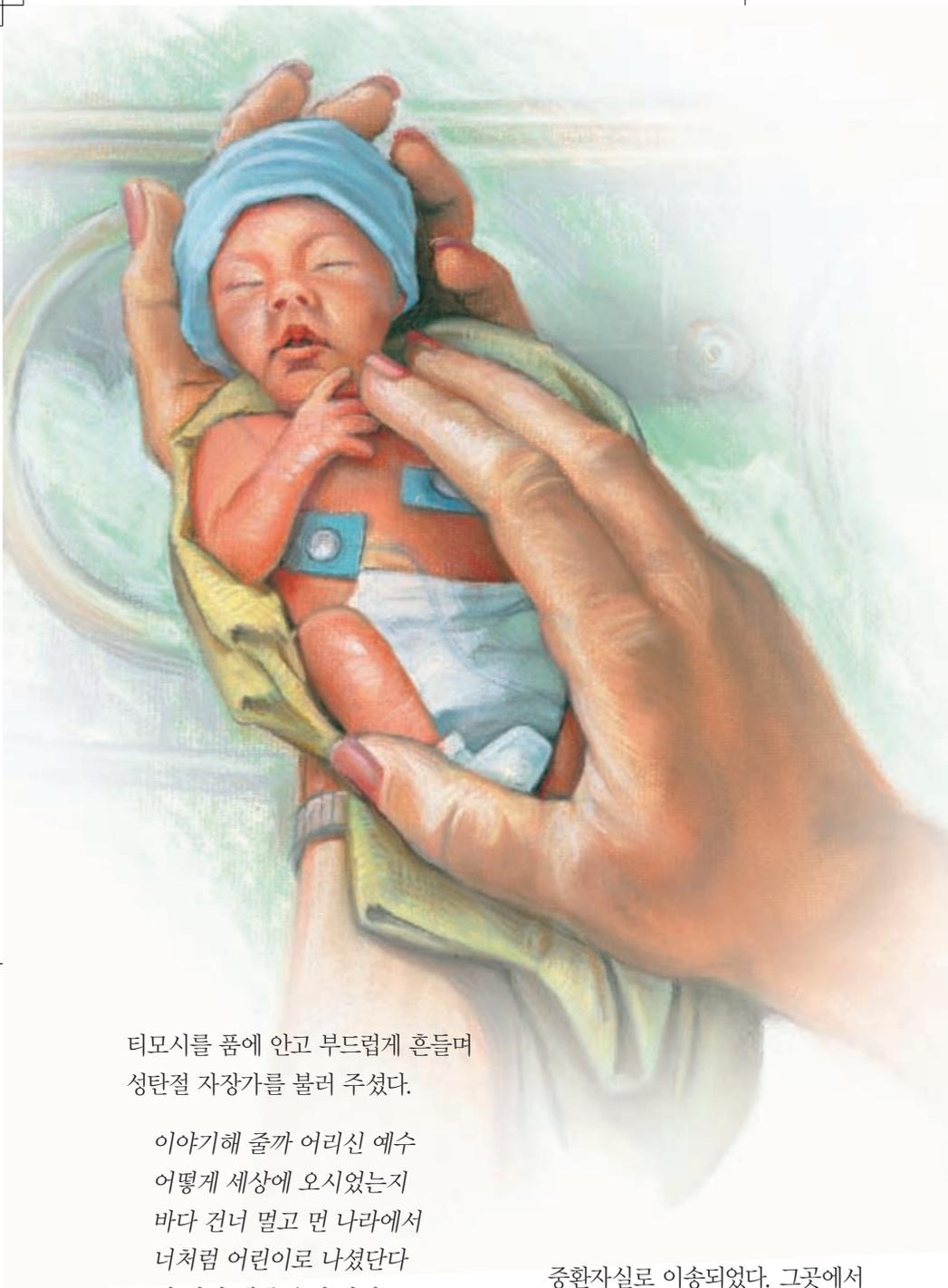
극도로 좌절해 있을 때, 나는 주님께서 티모시를 도로 데려가신다면 내가 주님께 어떤 봉사들을 제대로

하겠는지 말씀드리며 간구했다.

티모시를 잃게 되면 처음에는 슬퍼하겠지만 다시 정상적인 내 삶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 밖에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개인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와드 회원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모든 이들의 금식과 기도 덕분에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물론 티모시가 갑작스레 의식이 맑아지고 기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기를 바랐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티모시는 평소처럼 반응이 없었고 젖병을 무는 데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실망했다. 하지만 티모시를 안았을 때 아기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괜찮다.”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족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었다.

몇 주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들렀다. 조용하고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방에서 어머니는 연약하고 조그마한



티모시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성탄절 자장가를 불러 주셨다.

이야기해 줄까 어리신 예수
어떻게 세상에 오시었는지
바다 건너 멀고 먼 나라에서
너처럼 어린이로 나셨단다
잘 자라 예쁜 우리 아기
무서워할 것 조금도 없네
잘 자라 예쁜 우리 아기
예수님 아기를 지키시네¹

나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지상에 오신
구주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께서는 분명
이 작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지켜 주실
것이고 그 아이를 돌보기로 선택한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이다.

몇 주 후, 티모시는 내가 일하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티모시는 기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나는 티모시가
괜찮을 것이라는 놀라운 느낌을 다시
경험했다. 여러 방면으로 호전되었지만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우 평화로운
느낌이 머물고 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그 느낌이 나를 정화시켜 주고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진다. “걱정 마.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티모시를 마음껏
사랑해 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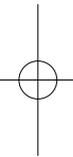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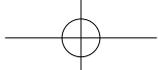
이번 성탄 절기에는 구주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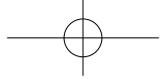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떠올리게 된다. 구주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평화를
얻도록 하신다. 평화를 가져오는 가장
훌륭한 선물 중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 우리 슬픔을
그분께 드리는 기회이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걱정거리를 그분께 드릴 수 있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탱해 줄 특별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들어올리실
것이다. 그 선물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한다. 나는 큰 아이 들을
돌봐줄 사람, 워드 회원들이 가져온
음식, 훌륭한 간호사와 의사, 사랑이
많은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그러한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가장
도움이 된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슬픔과 걱정을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평화이다. 그분
덕분에 나는 티모시를 마음껏 사랑하고
아껴주게 되었으며, 티모시의 특별한
삶 덕분에 내 삶에 놓인 모든 사람과
축복들을 기뻐하게 되었다. ■

주

1. “이야기해 줄까 어리신 예수”, *어린이 노래책*, 30쪽.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

헨델과 메시아가 전하는 선물

거룩하게 성임 받은 날들이 다할 때, 헨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 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타고난 음악가인 듯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바이올린과 오르간을 능숙하게 다루는 젊은이였습니다. 독일에서 첫 번째 오페라를 완성한 뒤에 헨델은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인 이탈리아로 옮겨 가서 이탈리아식 음악 작곡을 시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헨델은 오페라와 실내악 작곡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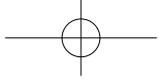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이 작곡가는 결국 뇌졸중에 걸려 오른팔에 잠시 마비가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헨델의 성실한 비서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음악가는 영영 잃었어요. 뇌가 영구히 손상된 듯합니다.”¹

26세가 되던 1711년, 헨델은 영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헨델은 영국에서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3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영국 청중은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로 부르는 오페라에 흥미를 잃었고, 대신 *거지 오페라*와 같은 희극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헨델은 채권자들이 늑대처럼 집에 몰려드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수년간 버둥거리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작곡가는 진단을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엑스라샤펠(독일 아헨 소재) 온천 치료를 통해 차도를 보였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헨델은 가까운 성당에서 오르간으로 연주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 보았고, 그리고 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승에서 살아 돌아왔구나.”²

1737년, 헨델은 체력에 한계가 올 정도로 음악에 매진하여 열두 달 동안 오페라를 네 편이나 작곡했습니다. 그때 신두 살이었던

헨델은 런던으로 돌아와 오페라 작곡을 다시 시작했지만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다시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깊은 실의에 빠진 작곡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동료들의 손에 다시 문힐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의 부활을 허락하셨을까?”³ 1741년 4월, 헨델은 고별 연주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연주회를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던 시인 찰스 제넨스가 남겨 두고 간 원고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대본에는 성경 구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주님의 성역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일을 설명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자유로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헨델의 창의력은 고갈되었습니다. 한 전기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할 것도, 마칠 것도 없었다. 헨델은 허탈감에 사로잡혔다.”¹⁾ 같은 해 8월 어느 날 오후 늦은 시간, 길고도 고단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헨델은 예전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던 시인 찰스 제넨스가 남겨 두고 간 원고 한 편을 보았습니다. 이 대본에는 성경 구절,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주님의 성역과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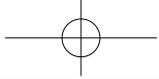
설명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자유로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오라토리오로 만들기 위해 쓰여진 작품이었습니다. 대본을 읽어 내려가던 헨델은 이전에 했던 실패들을 떠올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로하라.” 원고 첫 마디가 지면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헨델을 짓눌러온 어두운 먹구름이 흩어져버렸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선언과 다른 필멸의 아기들처럼 태어나 지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울증은 사그라졌고, 기분은 관심을 넘어 흥분으로 고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기 나셨다” 부분을 읽는 순간 작곡가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작곡한 익숙한 음률이 밀려들었습니다. “주는 목자요(He Shall Feed His Flock)”라는 아리아에서는 사랑 충만하신 선한 목자상을 떠올리자, 연필을 종이에 갖다 대기도 전에 음표들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곧이어 압도적인 환희가 “할렐루야 합창”에서 솟아나왔고, 이어서 “내 주는 살아 계시고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에서는 부드러운 천상의 간증이 흘러나왔습니다. 작품은 “존귀하신 어린 양(Worthy Is the Lamb)”으로 장엄한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1741년 늦여름, 한 평생 음악을 작곡해 온 헨델은 단 3주 만에 대부분을 완성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독창적인 작품으로 마침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곡을 마치고 나서 그는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헨델의 메시아가 전하는 압도적인 간증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손길을 느끼는 분들은 그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첫 오라토리오 공연을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헨델은 첫 번째 메시아 공연과 향후 모든 공연에서 얻은 수익금은 “죄수들과 고아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클라인의 불로초, 덴마크 헬레네 드 프레데릭스버그 소세, 국립 오페라 극단 역시 박물관의 해력을 받아 사용함.



“그곳에 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한 청년이 작사 작곡한 노래는 성탄절 때만이 아니라 늘 구주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 모두를 복돋아 줍니다.

속삭이듯 부드러운 곡조가 흘러나오고, 깃가를 가득 메우는 선율이 금세 온 마음을 흥뻑 적십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시작하면, 이 음악을 영영 잊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곳에서 그분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분, 예수라 불리는 목수, 큰 무리가 그분께 모여드는 모습을 본다면, 나 또한 그들을 쫓아가 그분 음성 듣지 않을까?
그분을 보게 된다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을까?

합창단을 보십시오. 모든 단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음 한 음 조심스럽게 빚어내는 반주자들과 모든 공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음향 기사들을 보십시오. 경험과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목소리를 한데 모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스테이크 청년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는 작사 작곡을 도맡고, 모든 여행 연습과 공연을 조직했으며, 친구와 교회 회원과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성탄절 선물을 마련한 스무 살 난 지휘자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마이클 매클라우드의 자신이 준비한 경축행사가 네 개 집회소에서 공연되고 각 공연이 기대감에 가득 찬 수백 명의 관중으로 채워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들이 음악과 말씀을

결들인 칸타타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람들이 구주를 예배하도록 도우라는 임무를 받았기에 거기에 부응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6월이나 7월에 열릴 계획이었으나 몇 번 연기된 끝에 12월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대표들이 부탁 받은 내용을 들려주었을 때 저는 즉시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음악을 빌리지 말고 직접 곡을 만들어서 쓰면 어떨까요?’ 청년 독신 성인 대표들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할 책임자도 알았습니다. 바로 마이클 매클라우드였습니다.

마이클은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마이클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교사예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늘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열일곱 살 때까지 마이클은 진지하게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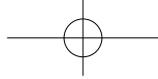
“음악은 제 취미가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음악을 사랑합니다. 음악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지휘를 하고, 합창단에게서 느끼는 힘, 특히 복음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뿜어져 나오는 힘을 느끼는 게 좋아요. 청중이 음악에 매료되는 모습을 보고, 영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영을 느끼게 될 때에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게 음악은 무척 소중한 겁니다. 평생 음악에 관여하며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클이 가장 사랑하는 일은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절기에 음악으로 간증을 나누는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칸타타 선율과 가사를 통해 구주에 대한 저희의 간증을 전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힘있는 음악을 선사하는 동시에 강한 간증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주와 직접 알고 지냈던 경전 속 인물들의 간증을 활용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안나, 시므온, 베드로, 야고보, 제자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스도께 병고침을 입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하려고 애썼고, 효과도 컸습니다. 구주께서 전하신 간증도 사용했어요. 모든 것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칸타타 일부가 담긴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WWW.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우리 모두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처럼, 이생에서 창조적인 영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영감 받기를 기도합니다.



환자들"에게 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헨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몹시 아팠지만, 이제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속박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⁶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메시아 공연을 마친 뒤에 한 관객은 아주 “즐거웠다.”며 헨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에 헨델은 겸허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즐겁게만 해 드렸다면 유감입니다. 저는 이 음악으로 청중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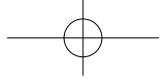
이 지상에 속하지 않는 분을 포함한 자신의 청중을 위해 최고의 작품을 작곡한 뒤에야 헨델은 마침내 끊임없이 추구해 온 명예와 부, 명성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더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하찮은 것들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온 작곡가 헨델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헨델의 삶에서 얻는 교훈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삶, 그리고 영적 이정표가 된 음악 작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야 하며, 우리 작품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 루디야드 키플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의심할 때, 그대 자신을 신뢰하라. 하지만 그들의 의심도 고려해야 한다.”⁸
2. 양이 질이나 다양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헨델의 초기 오페라들은 대부분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상투적인 그 작품들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헨델이 작곡한 오페라들은 모두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3. 영감을 받아 행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을 억지로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감과 계시가 올 때 우리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의 능력이 만물을 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33:16).
4. 우리는 영감과 계시가 흘러나오는 원천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매튜 라이어, 크레이그 다이먼드, 크리스티나 스미스, 존 루크, 이한규



우리도 업적을 치하하는 말들을 들을 때 그 영예를 다른 데로 돌린 헨델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5.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능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훨씬 능가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엘마서 31:5 참조)
6. 어떤 일에서 진정한 영적 의미는 성신의 증거로 전해집니다. “이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거나 노래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니파이후서 33:1).
7. 권능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있으며,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당대 종교 성직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헨델이 작곡한 다른 오페라와 오라토리는 성경 속 내용을 다루기는 했지만 음악 형식은 성경에 담긴 힘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과 성역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 혹은 그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느껴지는 힘

말입니다. 그러나 헨델의 메시아에서는 경건의 모양과 그 능력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서는 입술과 마음 모두가 하늘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 모두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처럼 이생에서 창조적인 영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필멸의 삶을 물질적으로 돌보고 지상에서 보내는 나날 동안 의롭게 생활하는 것 모두 영적인 성취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영감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구조하려 할 때 세월의 검증을 거친 전형적인 방법이나 스스로 부여한 개념에 갇혀서 우리의 영적 창의력을 제한하거나 계시를 차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배릿 브라우닝은 서사시 *오로라 리*에서 자신의 장려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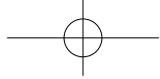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이 땅은 천국이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임하시 모든 광장의 떨기 나무가 타오르는데,
그러나 오직 이를 본 사람만이 신을 벗는다.
나머지는 둘러앉아 검은 딸기를 딸 뿐이지.⁹

우리 각자가 신발을 벗고, 하늘의 정수로 우리 과업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훌륭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검은 딸기를 따는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록하게 성임 받은 날들이 다할 때, 헨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Stefan Zweig, *The Tide of Fortune: Twelve Historical Miniatures*(1940), 104쪽.
2. *The Tide of Fortune*, 107쪽.
3. *The Tide of Fortune*, 108쪽.
4. *The Tide of Fortune*, 110쪽.
5. *The Tide of Fortune*, 121쪽.
6. *The Tide of Fortune*, 122쪽.
7. Donald Burrows, Handel: *Messiah*(1991), 28; 또한 “A Tribute to Handel”, *Improvement Era*, 1929년 5월호, 574쪽 참조.
8. Rudyard Kipling, “If”, *The Best Loved Poems of the American People*, sel. Hazel Felleman(1936), 65쪽.
9. Elizabeth Barrett Browning, John Bartlett, comp., *Familiar Quotations*, 14판(1968), 619쪽.



닐 엘 앤더슨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

현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더불어 성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1959년 성탄절 아침은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어린아이답게 기대를 잔뜩 품고서 새 자전거를 몹시 바라고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와 저에게는 구식인 24인치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 저희는 모두 그 자전거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자전거라 저는 부모님께 새 자전거를 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님께 그런 지출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자 저는 지하층 침실에서 나와 재빠르게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거실로 달려가 자전거를 찾아보았지만 헛일이었습니다. 제가 걸어 둔 성탄절 양말 아래에 놓인 조그마한 선물을 보고 실망했지만, 저는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형의 선물 상자를 열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더듬어 불을 켜했습니다. 불빛이 부엌을 환히 비춘 순간, 저는 기쁨에 겨워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제 바로 앞에 26인치짜리 아름다운 검정색 자전거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 후 여러 해 동안 저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 정성껏 돌보고 지켰고, 자전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오랫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긴 선물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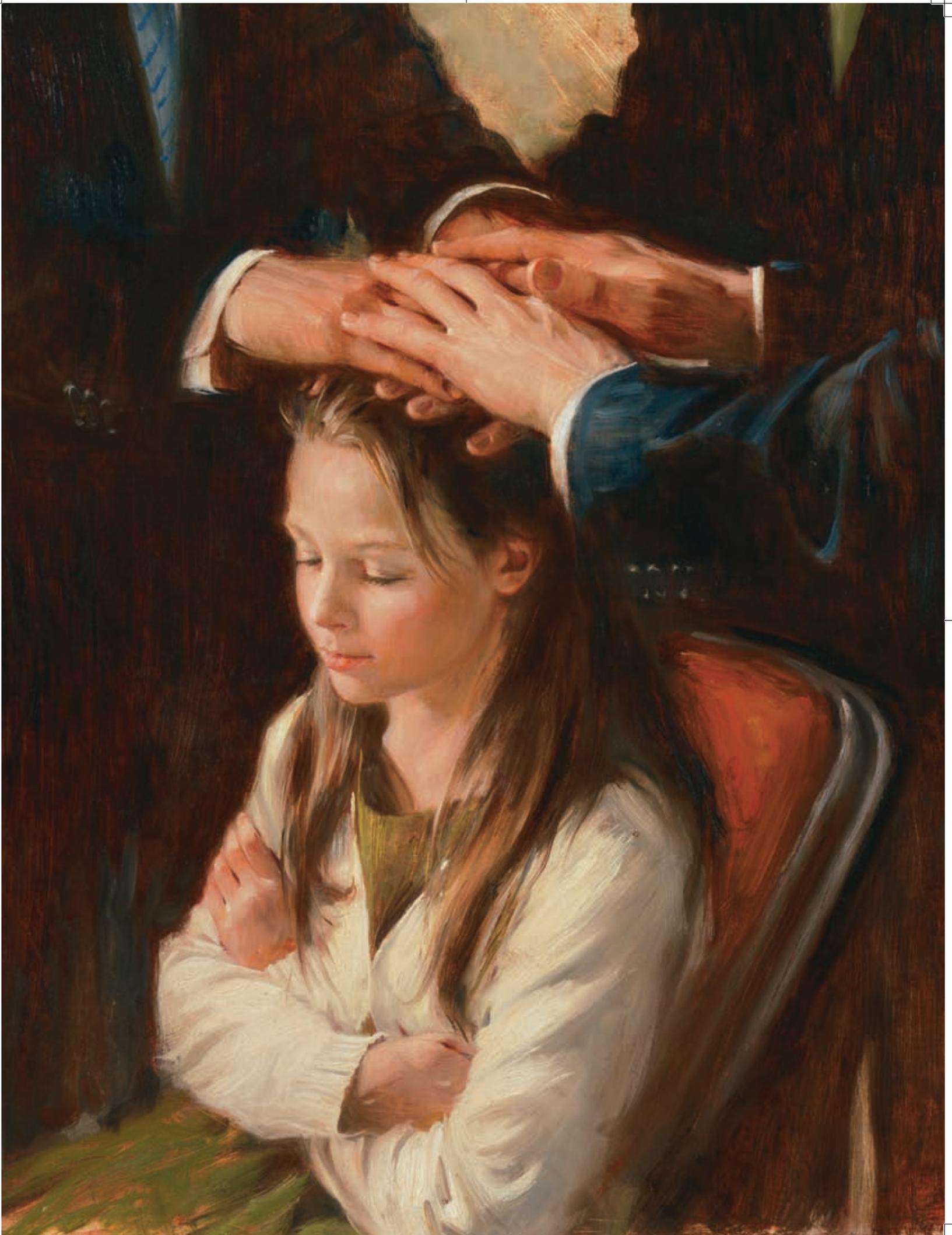
더 큰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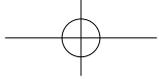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그 성탄절이 되기 꼭 3개월 전에 저는 자전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대한 선물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유년시절과 아마 그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저는 거의 구주께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으나]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제3니파이 9:20)고 말씀한 레이맨인들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지닌 무한한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곧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해야 했던 구주께서는 그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 하늘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7)

이것은 엄청난 힘을 지닌 선물입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이 은사를 간절히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교리와 성약 20:27; 또한 고린도전서 12:3; 제3니파이 28:11; 교리와 성약 42:17 참조) 성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성신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은사, 율터 레먼, 복사 금지





일을 알려 주십니다.(요한복음 16:13 참조) 성신은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고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교리와 성약 11:13)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의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모로나이서 10:5 참조) 성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니파이전서 10:19 참조)

성신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니다. (니파이전서 4:6; 교리와 성약 8:2 참조) 성신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니파이후서 33:1 참조) 더욱 중요한 점은 속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성신의 은사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은 “침례에 의한 …… 그리고 불에 의한 참으로, 성신에 의[해서 옵니다.]”(교리와 성약 19:31; 또한 니파이후서 31:17 참조) 결국 우리는 이 은사로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27:20 참조)

성신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는 이 은사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¹ 때때로 성신은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성신의 은사는 회복된 복음 성약을 받아들인 이들이 충만히 누리도록 예비된 것입니다.² 이 은사는 실재하며, 하늘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성신은 축복사, 헌신적인 가정 복음 교사, 영감 받은 친구 등 소수를 위해 마련된 선물이 아닙니다.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부지런히 구한다면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약속된 선물입니다. 월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님은 모든 성도에게 성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녀야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보혜사를 받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약속 받은 은사입니다. 이것은 빛, 진리, 계시의 영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³

개인적인 영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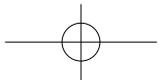
우리는 과거에 비해 교통과 통신, 정보 이용 수단이 매우 잘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 순결, 안식일 준수, 가족에 대한 책임,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후기 성도들이 오랫동안 한 목소리를 내었던 생명의 존엄성 같은 도덕적 문제에 대해 이제는 해석이 제각각이며 이를 둘러싼 격론이 한창입니다.(교리와 성약 1:16 참조)

우리는 기술과 통신 발달로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내몰리고 있으므로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자 부단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요한복음 17:14 참조)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성신의 은사를 인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오늘날 세상에서 개인적인 계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⁴

어떻게 하면 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절대로 필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매일 그 지침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할 때조차도 느낄 수 있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한 다음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온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1847년 2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꿈 또는 시현으로 브리검 영에게 나타났습니다. 영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를 조셉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항상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의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확신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열어 성신이 올 때 마음으로 성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계시가 올 것이라 믿는 것이 바로 확신을 갖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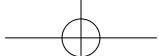
성신이 작용하는 방법

성신이 매일 교회 회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무수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대부분은 조용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며, 일어난 변화를 돌이켜볼 때 극적인 사건으로만 보입니다. 제가 들었던 경험담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 한 여성은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성찬식 모임에 참석해 있는 동안 스테이크 회장님이 일어나 간증을 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한 성구를 읽었습니다. “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는 보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이니라.”(엘마서 39:14) 그 성구는 그 안식일에 그 자매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가오는 해에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일을 영으로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 침례를 받은 한 여덟 살 난 아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고서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간증을 나누려고 행복한 마음으로 연단에 선 그 소년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이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 한 선교사와 그의 동반자는 자신들이 물문경을 준 어느 구도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문경을 받았던, 그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문을 연 순간 강렬한 느낌이 이 선교사를 에워쌌습니다. 그 여성은 선교사들을 맞이하면서 자신이 물문경을 읽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는 자신이 받은 느낌에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세요.”
- 집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한 젊은 대학생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도움을 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업을 받던 중 놀라운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향수병은 사라졌습니다.
- 한 충실한 아버지는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내밀기까지 소리 없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괴로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뚜렷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단다.’
- 열여섯 살 난 한 월계반 청년이 주일학교 반에 참석하여 교사가 전하는 공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때는 부활절이었고, 교사는 속죄에 관한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교사는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구명에서 피를 흘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속죄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5년이 더 지난 후에 그녀는 감격해 하며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성신은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

우리는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악의 요소들이 사방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통신 기술은 사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빠르게 성신의 은사에 대한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싶다면 더 큰 순종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올바른 음성을 따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영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이것은 고대의 해결책으로 영원한 해법이지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곳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세상에서는 이 해법을 사용하는 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해결책은 시끄럽고,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화려하며, 노골적인 것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미세한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사용하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해결책을 사용하려면 보이는 것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⁶

속고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저는 때때로 제 자녀들의 삶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부 아이다호에 있는 작은 가족 농장에서 자란 저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 날 동안 아버지와 울타리를 치고, 감자 밭에서 여러 시간 말없이 관개수로관을 옮겨 물을 대고, 집에는 채널이 세 개밖에 안 되는 텔레비전 한 대가



전부였으며, 컴퓨터도 MP3도 휴대폰도 없었고, 여행을 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떠나더라도 기껏해야 이웃 도시를 벗어나는 정도였고, 오락거리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대다수 저희 세대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더불어 성신의 작용을 촉진시키는 일들을 포기하지 맙시다. 혼자서 기도하고 숙고하고 명상하고 경전을 읽을 시간, 소음과 오락거리와 너무 많은 활동으로 방해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지 맙시다.

속삭임에 응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는 느낌을 따를 때, 그 느낌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성장을 합니다.”(교리와 성약 109:1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속삭임을 받으면 절대 미루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현명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기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런 후 몬슨 회장은 질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스탠이라는 친구와 관련된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를 받고 가족과 친구들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스탠은 침대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어 절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데저렛 체육관 수영장에서 배영을 하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몬슨 회장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수영을 하고 있구나. 움직이지 못하는 네 친구 스탠은 병원 침대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는 이런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스탠을 축복해 주렴.’

저는 수영을 그만두고, 옷을 입고서 스탠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스탠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스탠이 휠체어를 타고 수영장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니 스탠은 물이 좀 깊은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병실로 돌아가서 저는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스탠은 결국 힘을 되찾아 다리를 움직이게 되었고 다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스탠은 그날 오후 수영장 난간에서 휠체어에 의지해 앉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어둡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고 몇몇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스탠은 이렇게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보기도 싫은 휠체어를 움직여 깊은 수영장의 고요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척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스탠은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스탠은 친구인 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스탠은 말 그대로 혼자서만 걷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날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기를 결코, 결코,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⁷

주님께서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성신의 은사를 매우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한 자는—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짙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교리와 성약 45:57)

우리는 기회와 배움과 번영을 누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운 것들과 더불어 대적의 속임수도 비열해지고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 구석구석을 비집고 들어오고 심지어 안전한 피난처인 우리 가정에도 깊이 파고들려 합니다. 우리가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이 은사를 알고 보호하고 이 은사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이 점점 증가하므로 의인들에게는 이를 상쇄하는 힘인 성신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날을 견디[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년), 49쪽 참조.
2. 델런 에이치 옥스,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59쪽 참조.
3. Teachings: Wilford Woodruff, 41, 51쪽.
4. 보이드 케이 패커, “경건은 계시를 불러일으켜”,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6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97~98쪽.
6.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영의 음성”, 리야호나, 2006년 6월호, 6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73, 75쪽.



칠십인의

칠십인의 일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절기를 축하하고 구주의 탄생을 기념할까?



가 족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려면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구주를 성탄절의 중심에 둘 수 있을까? 구주와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나라와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칠십인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소개하고자 칠십인 일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들어보았다. 칠십인들이 들려주는 의미 깊은 성탄절 추억과 간증, 전통을 살펴보자.(괄호 안에 칠십인의 출신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브라질): 저에게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성스러운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매우 특별한 기회입니다. 연중 다른 시기와는 다르게 이 절기에는 형식을 갖추어서 특정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기회입니다.



데이비드 에스 벅스터(스코틀랜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성탄절 전야에 축가도 부르기도 와드 저활동 가족들에게 성탄절 장작(성탄절 전야에 벽난로에서 태는 굵은 통나무-옴긴이)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전야에 초를 밝히고, 성탄절 이야기를 읽고, 가족이 함께 특별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럴드 코세 장로(프랑스): 저희 가족은 성탄절을 단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저희는 가족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양로원을 찾아가 성탄절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들을 팔에 안거나 유모차에 앉힌 상태로 공연하는 작은 합창단이었습니다만,

성탄절 장식물 사진 촬영: 조 토크. 자구의 사진 촬영: MOUNTAIN HIGH IMAGES © 1983 DIGITAL WISDOM



성탄절 전통



이제는 자라난 그 아이들이 숙련된 합창단원이 되었습니다. 44명이나 되는 저희 합창단은 프랑스 전통 축하뿐만 아니라 교회 찬송가도 부르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 후에 아이들은 가족이 함께 마련한 작은 선물을 투병 중이거나 연로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저희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일일이 모든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에게나 늘 할 이야기는 많으니까요.

저희의 방문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짚어지는 것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성탄절은 저희가 일 년 내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우루과이): 성탄절은 저희 가족의 삶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절기에 늘 따뜻한 느낌으로 충만해집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은 화평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임을 느낍니다. 저희 가정에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통이 있는데, 특별히 구주께 편지를 써서 그분께 드리는 선물로서 성탄절 트리 아래에 놓아 두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브라질): 저희 가족은 물문경에 간증을 적어서 친구와 친척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보냅니다. 사람들은 늘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나누고 성탄절 주인공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크리스토펬 콜든 이세 장로(남아프리카 공화국): 성탄절 전야에 저희는 함께 둘러 앉아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한 후 구주께서 탄생하신 이야기가 담긴 누가의 기록을 읽습니다. 성탄절 아침에는



안식일 복장을 하고 간단한 성탄절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모임에는 비회원들과 저활동 회원들도 상당수 참석합니다. 그 후에는 친구들과 및 함께 모인 가족들을 방문하고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진정한 성탄절의 영을 느끼며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됩니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미국): 과거에는 성탄절 전야가 되면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며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사람씩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후 그러한 깊은 사랑을 서로에게도 표현했는데, 가족에게 표현하는 사랑은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가족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각 가족 구성원이 끝까지 신앙에 충실하도록 힘찬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모임을 마칠 때에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폴 브이 존슨 장로(미국): 저희의 전통 중 하나는 해마다 가족이 함께 헨델의 메시아 합창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전통입니다. 저희는 각자 악보를 들고 헨델의 곡에 맞춰 아름다운 가사로 노래를 부르면서 구주의 성역을

떠올립니다.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일본): 성탄절 약 30일 전부터 아내와 저는 경전에서 구주의 탄생에 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12월 25일이 될 때까지 매일 그렇게 읽는다면 이야기에 이야기가, 성구에 성구가 더해져서 성탄절의 영이 점차 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니파이가 부친의 꿈에 나온 나무의 의미를 아느냐는 천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니파이전서 11:22) 저에게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독일): 이 절기에는 온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전나무 가지에 장식을 달고, 창문에는 촛불 장식을 놓고, 장식전구가 달린 줄을 매달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성탄절 장식을 갖다 놓고, 쿠키와 생강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전나무 향과 계피 향이 온 집안에 가득 퍼집니다.

성탄절 전야는 가족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희는 촛불을 켜고 난로에 불을 지웁니다. 좋아하는 성탄절 축가가 실린 특별 노래책도 준비합니다. 저는 아코디언을 꺼내고 모두 함께 부를 축가를 하나씩 고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특별한 영을 느낍니다.

그런 후 선물을 열어 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물 포장을 벗길 때마다 함께 신이 납니다. 모든 선물을 열어 본 후에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소중한 선물을 안고 재빨리 사라집니다. 어른들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로 특별 가정의 밤 같습니다.

때로는 초대해 주지 않으면 외롭게 지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성탄절 전야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날은 더욱 훌륭한 성탄절이 됩니다.



마이클 존 유 테 장로(필리핀): 저에게 성탄절은 그리스도와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더 잘하겠다고 다시금 결심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일 년 내내 성찬식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임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탄절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주가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재결심하는 성탄절 같습니다.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포르투갈): 이 절기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성탄절의 영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경전을 읽으면서 구주와 성탄절의 참뜻을 되새깁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성탄절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고, 받고, 가족이 다시 연결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절기입니다.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스페인): 저는 1989년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 살타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당시에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선교사부로부터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선교사들을



숙소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니다.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월 24일 아침, 저희는 선교부 차량에 짐을 싣고 선교부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조들은 선교부 북부 지역으로 떠나고 저는 여덟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선교부 남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숙소에 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하고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제 아들에게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각 숙소를 방문하고 선교사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모두에게 훌륭한 경험이 되었으며, 늘 멋진 성탄절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두 딸은 선교부 사택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들과 저는 12월 25일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성탄절 전야를 함께 보내지 못한 날이 되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조지 에프 제볼로즈(칠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라는 간증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 그분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아르헨티나): 저와 저희 가족에게 성탄절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전야에 가족이 함께 모여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하신 특별한 사건을 묘사하고, 읽고, 찬송하는 가족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것은 항상 저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 행사이며, 저희는 매일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이 절기의 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선물

조안 엠 올레니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럴은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한 아기가 나셨다”이다. 이 곡은 성탄절에 갖든 진정한 의미를 생각나게 한다. 나는 종종 천사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본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누가복음 1:28)

놀라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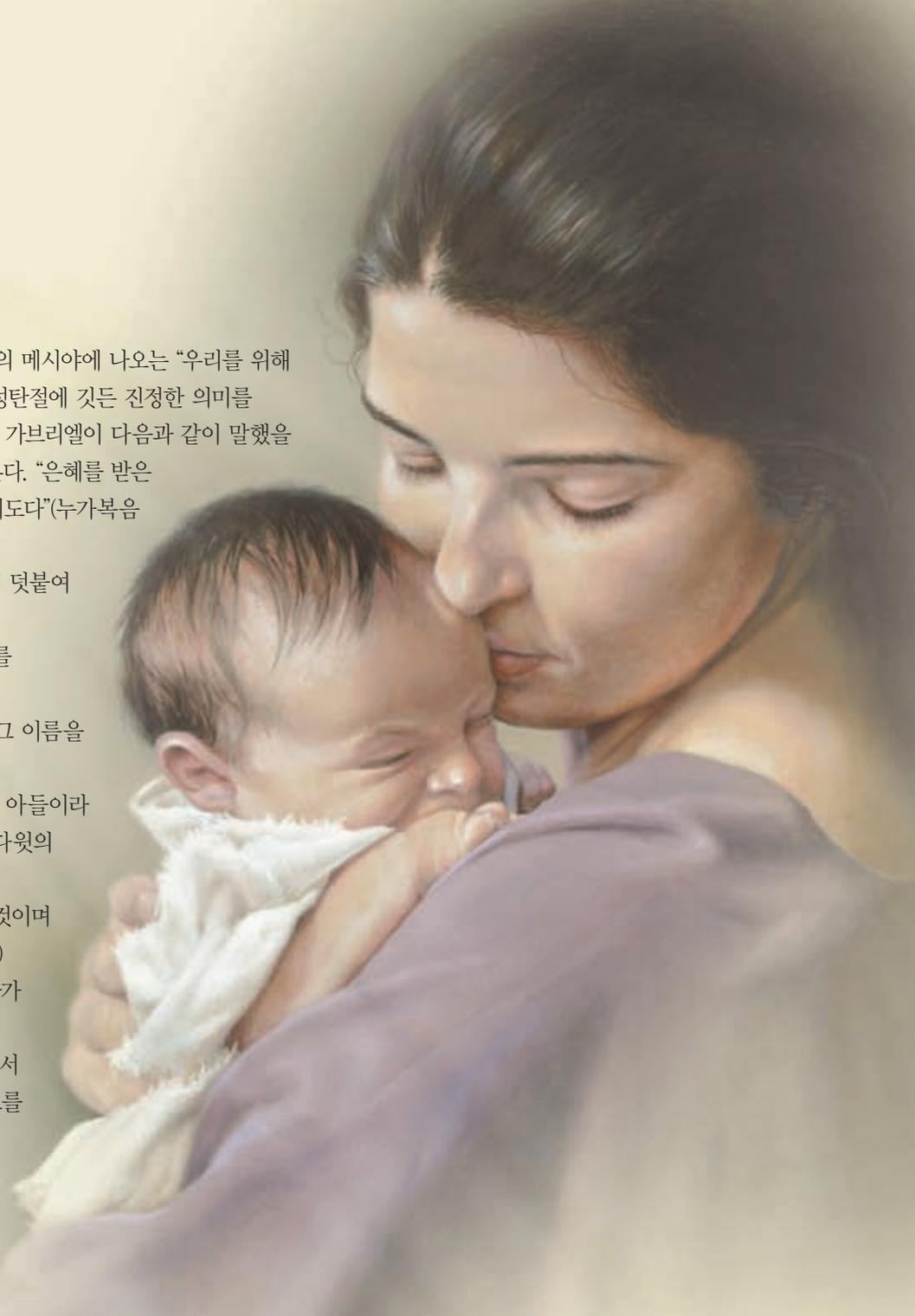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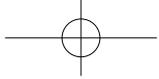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누가복음 1:30~33)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이었을까! 마리아가 약속 받은 아들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데려오도록 선택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이와 빈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그것을 구하려고 온 가게를 다닐 필요는 없다. 동전 한 닢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 선물은 반짝이는 포장지에 싸여 있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담은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셨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는지 나누고 싶으십니까? 구주의 성역과 사명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 이야기나 영적 생각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나 은혜, 치유, 희망, 회개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500자 이내로 원고를 쓰고, 제목란에 “We Talk of Christ”라고 적은 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천사였어요

“스완지 오케스트라와 웨일즈 합창단이 공연하는 헨델의 메시아” 포스터를 보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웨일즈 스완지에서 선교 사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새내기 선교사들이 성탄 절기에 으레 느끼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 휴일 절기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활동을 함께 했는데 나는 헨델의 메시아를 감상하러 가는 일을 가장 즐겼다. 어머니는 그와 같은 공연에서 여러 차례 오르간을 연주하셨고 나는 공연장에 앉아 음악을 음미했다.

나는 선교부 회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지역 선교사들을 위해 표를 샀다. 공연 날 밤, 선교사들은 추위에 대비해 무장을 하고 공연장으로 걸어갔다.

마음속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감 받은 곡에서 신성함을 느끼기를 기도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우리가 늦었고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간 휴식 시간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문틈으로 흘러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안내자가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안내자는 중간 휴식 시간까지 뒤에 서서 곡을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내자가 문을 살며시 열자 우리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다.

공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화롭고 기쁜 느낌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가리키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우리 모두 조용히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는지 알 수 없었다. 중간 휴식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자리를 잡았다.

성담곡(성경 내용을 담은 대규모 종교 음악-오페라)이 다시 시작되자 내 영혼은 음악으로 가득 찼다. “할렐루야” 합창곡과 소프라노가 부르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들으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선교사들도 음악의 힘을 느끼고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에 참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을 나서려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가리키며 소근거렸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었어요! 바로 당신들이었다고요!”

공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마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화롭고 기쁜 느낌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우리를 가리키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심화: 헬렌 김스





선지자 조셉 편에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문을 몰라 의아해 했다.

“공연 전반부에 우리는 공연장이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다.

“그래서 무엇이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려고 뒤돌아 보았어요. 객석 뒤쪽을 보니 마치 천사처럼 빛나는 일곱 명이 서 있더군요.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오자 성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 남자가 말하는 동안 나는 선교사 이름표를 내려다보며 내 이름 바로 밑에 있는 짧은 글씨를 읽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 순간, 내가 그날 밤 수천 명 앞에서 조용히 메시아를 증거하는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마음이 겸허해졌는지 모른다. ■

하이디 윈디쉬 페르난데즈, 미국 오리건 주

19 78년에 나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두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놀라운 기쁨을 느꼈다. 그 행복한 느낌은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날, 후기 성도 선교사 두 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나누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꿈을 떠올린 나는 그러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남편은 꺼려했지만,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자 승낙을 했다.

그날 선교사들은 선지자에 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잘 알았다. 선교사들은 현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토론을 마치고 나서 장로들은 다시 방문해서 토론을 더 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토론을 몇 번 더 하고 나서 선교사들은 내게 침례를 권유했다. 배운 내용이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고 싶었다. 선교사들이 내게 가르쳐 준 가르침 가운데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런 간증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을 확인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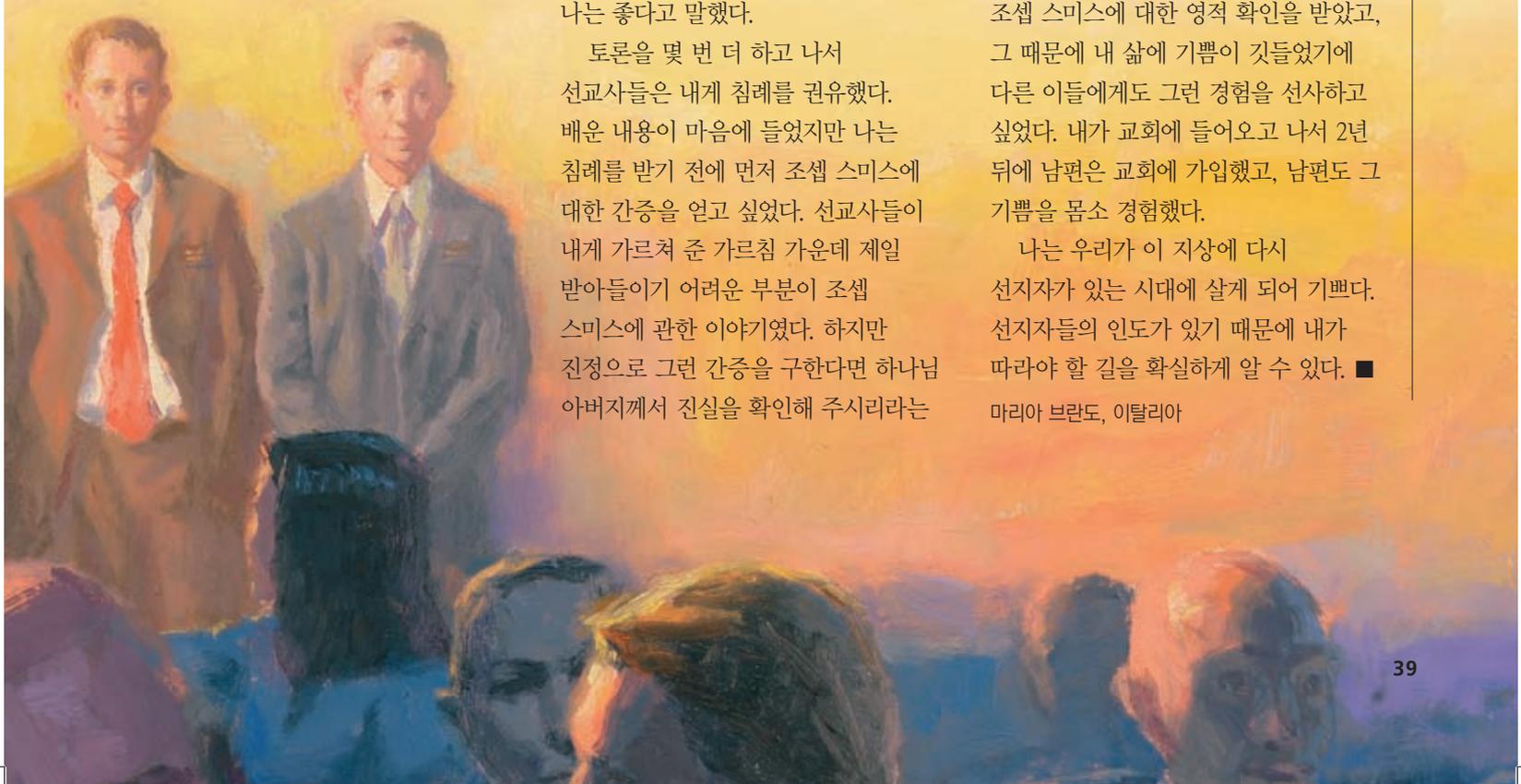
나는 그 동안 내가 속해 온 교회의 성직자 한 분을 만나러 갔다. 나는 선교사들에게 배운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들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분은 내 이야기를 마저 다 듣기도 전에 조셉 스미스는 미친 사람이며 공상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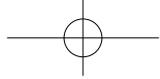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그때 불현듯 내게 말하는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조셉 스미스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심장이 격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아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미 회복의 선지자 편이 되어 있었다.

그 성직자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응답을 받았으며, 아들들을 어느 교회에서 길러야 할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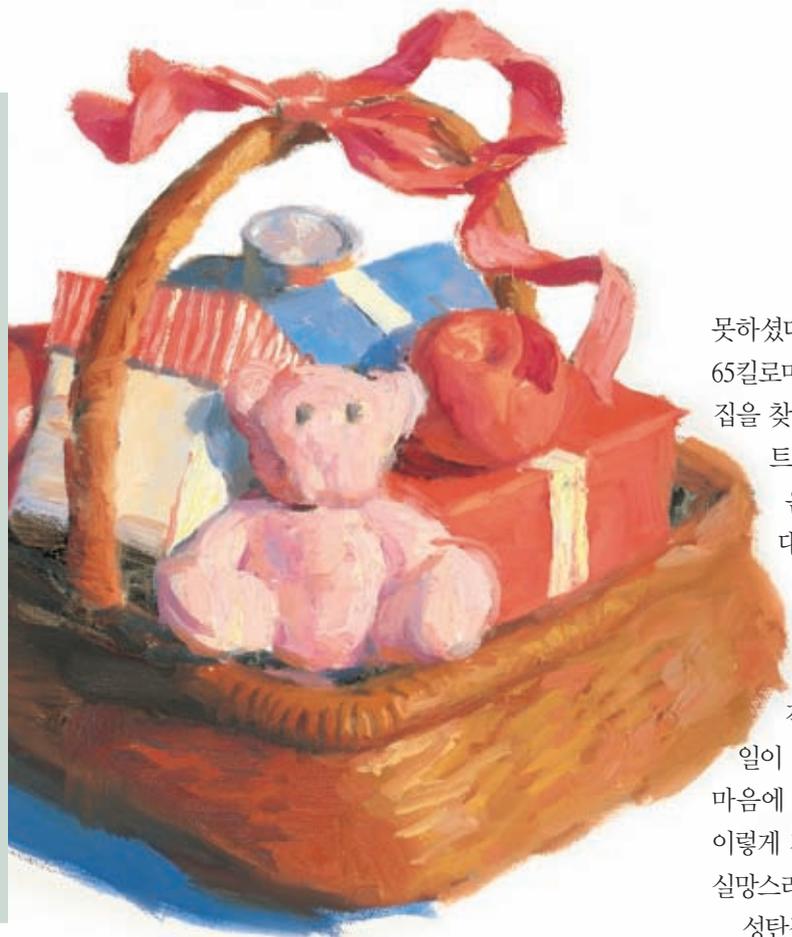
얼마 뒤에 침례를 받은 나는 내가 알게 된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느꼈다.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영적 확인을 받았고, 그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깃들었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2년 뒤에 남편은 교회에 가입했고, 남편도 그 기쁨을 몸소 경험했다.

나는 우리가 이 지상에 다시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 살게 되어 기쁘다. 선지자들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마리아 브란도, 이탈리아





현 관에 음식과
기타 생필품과
몇 가지 장난감이
든 큰 바구니가
놓인 것이 보였다.
잘못 배달된 것이
틀림없었다.



못하셨다. 삼촌은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해 65킬로미터쯤 떨어진 코펜하겐에서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삼촌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가족이 축하하며 먹을 음식을 마련해 주시며 힘 닿는 대로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다. 또한 누나와 나를 위해 몇 가지 선물도 가져오셨다. 우리도 어머니와 삼촌을 위해 몇 가지 간소한 선물을 샀다.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여전히 우리는 이번 성탄절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며 다소 실망스러워했다.

성탄절 전날, 초인종이 울렸다. 창문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안 보였다. 나는 장난일 거라 여겼으나 누나는 어쩔든 문을 열어 보라고 했다. 현관에 음식과 기타 생필품과 몇 가지 장난감이 든 큰 바구니가 놓인 것이 보였다. 잘못 배달된 것이 틀림없었다. 우리는 이웃집으로 가서 혹시 이 바구니가 그쪽으로 배달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으려 했지만 옆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가 모든 선물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삼촌을 위한 선물도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해 우리 가족에게 남몰래 호의를 베푼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성탄절을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에게서 느낀 친절과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동이 밀려온다. ■
몰튼 손더스코프, 덴마크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

어린 시절, 12월에 어머니가 몹시 앓으신 적이 있다. 그때 어머니는 약 때문에 극도로 피로감을 느끼셔서 하루에 18시간 가량을 주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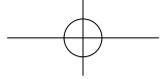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홀어머니 슬하에서 누나와 나는 최선을 다해 집안 일을 돌봤지만, 어리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잘해내지는 못했다. 어머니 병세가 며칠간 지속되자 우리는 먹을 만할 게 있는지 찾아 보아야 했다. 부엌을 뒤지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에는 한 와드 자매님이 음식을 들고 서 계셨다. 자매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면서 저녁거리를 가지고 오셨다. 자매님은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냐고 물으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끼리 지내

왔냐고 걱정해 주셨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시켜드렸고, 음식을 나누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자매님께 정말 감사했다.

우리 집을 나선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가족이 어떤 형편인지 알리셨다. 이튿날부터 계속 와드 회원들은 여러 날 동안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는 무척 감사했다! 곧바로 먹지 않을 음식은 냉동시켜 두었다. 와드 회원들이 베푼 호의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음 3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양식이 충분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친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호전되셨지만 아직 예전 모습을 찾지



누가 선물이 될 것인가?

결 혼하고 나서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은 1982년, 클레토와 나는 가족 전통을 세우기로 했다. 친인척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첫 번째 회원이었기 때문일까? 여태껏 우리는 성탄절 축하 모임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얻기는 했지만,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동정심과 봉사는 결여되어 있었다. 게다가 8개월 된 우리의 첫 아기 디에고가 있으니 더욱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대학 공부, 집안일, 교회 부름, 처음 해 보는 부모 역할에 허덕이며 정신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특별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12월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장식물을 만들며 주변에서 보는 장식물과 색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계획했고, 실용적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선물들을 생각해

모 두 단념한 채 저녁 식탁에 앉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냈다. 그리고 경전 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세를 바꾸고 싶다면 구주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고민했다.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답은 경전 안에 있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마태복음 25:40) 한 일이 곧 그분께 하는 일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탄절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회원 한 분을 초대하여 가정에서 따뜻함과 사랑 넘치는 분위기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기운을 내야 할 사람, 즉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구주께 드리는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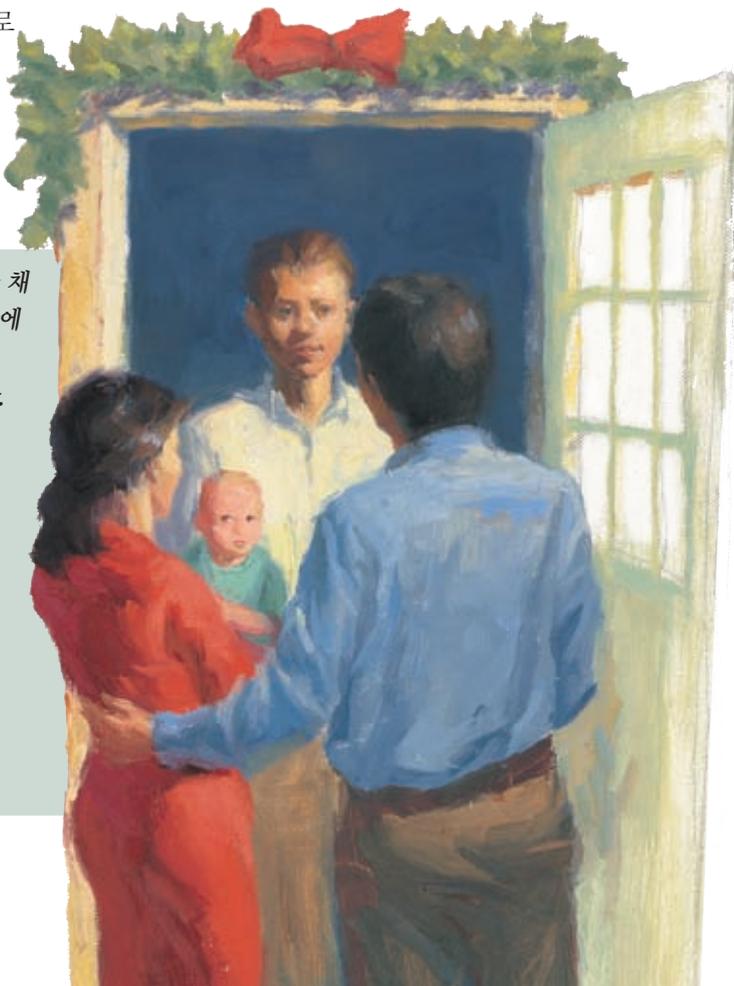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려 할 때마다 이미 다른 활동 약속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성탄절 전야 때까지도 성탄절을 함께할 사람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 단념한 채 저녁 식탁에 앉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서 있었고, 나는 무척이나 기뻐했다. ‘아벨라’는 불행하게도 최근에 뼈아픈 이별을 겪었다. 홀로 남아 슬픔에 잠겨 있던 그 친구는 우리와 같이 있고픈 마음이 절실했다.

우리는 아벨라를 사랑으로 맞아주었다. 아벨라는 힘겨운 시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마침내 찾았다고 말했다.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고 아벨라에게 말해주었다. 아벨라가 주님께서 자신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구주께서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그 누군가를, 바로 우리 친구 아벨라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사이에 맺는 유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렇기에 우리 부부와 세 자녀는 해마다 성탄절이 돌아올 때면 늘 이것을 기억한다. 이 절기의 목적은 화합과 사랑, 우정이라는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것임을 말이다. ■

아나 마르시아 아그라 데 올리베이라, 브라질 페르남부코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젊은 시절에 배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0, 37)

때때로 청년 성인들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산이 너무 높고 험준해서 오를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낙담하고, 심지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처럼 여러분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아무리 속수무책인 듯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자신의 신성한 부름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분명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늘에서 온 천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누가복음 1:30).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요셉은 파혼 외에는 다른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20) 일전에 사가라도 하늘에서 같은 권고를 받았으며(누가복음 1:13 참조) 훗날 목자들도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누가복음 2:10).

오늘날 세상에도 결혼, 자녀를 갖는 일, 약속을 맺는 것, 의를 수호하는 일, 또래 압력에 맞서는 것 등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 여건과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권고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교리와 성약 68:6)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한 조언은 그들이 처한 그 문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의 모든 근심을 없애 줄 수 있는 구주의 성역에서 비할 데 없는 역할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탄생과 생애, 속죄가 있기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비극과 난관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구적이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께는 우리가 영원히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될 해결책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이루신 이유이자 속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모로나아서 7:41)

속죄를 통해 우리 문제에 해결책을 얻게 된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전은 이 점을 더 없이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이 내놓는 답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합리화할 것인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 나아갈” 것인가? 비극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내리막길마다 그분을 뿌리칠 것인가?

속죄는 인생에서 겪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를 신성한 운명이라는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운전대에 앉히십니다. 마리아는 그와 같은 순종심을 보여준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38). 마리아는 합리화도, 지체도,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처럼 순종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정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마태복음 1:24).

마리아와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비평가들은 이러한 교훈을 배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명석하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지만 절망 속에서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산더미 같은 문제는 볼 수 있지만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마치 벽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관점은 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분석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명석하고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도 인생에서 직면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볼 수 있지만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 시야를 가리는 벽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망원 렌즈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속죄를 통해 얻는 해결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관점은 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며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도표 1: 비평가

육체적인 눈



도표 2: 영적인 분석력을 갖춘 사람

영적인 눈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죽음과 죄와 약점과 인생에서 겪는 보편적인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쁘고 낙천적인 태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네 가지 주요 범주에 속하는데, 각 범주는 구주께서 경험하고 극복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 첫째, **죽음**.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 둘째, **죄**. 천사는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마태복음 1:21)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셋째, **약점**. 구주께서는 모로나이에게 그분의 “은혜[즉, 속죄를 가능케 한 힘]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이더서 12:2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넷째, **죄와 무관할 수 있는 인생의 일반적인 고통들**(예를 들어, 질병, 거부, 우울증, 실직 등) 이사야는 구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이사야 61:1~3; 또한 엘리야서 7:9~13 참조)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 뛰어난 치유력을 발휘하는 해결책이 구주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누가복음 1:46~47)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죽음과 죄와 약점과 인생에서 겪는 보편적인 고통들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고 인생의 불확실한 길을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러한 교훈을 젊은 시절에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0, 37). ■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손홍욱

20 08년 12월 하순, 한국 서울 성전 해의 왕국실에 앉아서 다가올 새해에 대해 생각했다.

바로 두 달 전쯤에 이 성전에서 결혼한 나는 직장 and 교회 부름과 새로 꾸린 가정생활로 뻑뻑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동안에는 종교 교육원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지만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았다.

새해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종교 교육원에 계속 참석하라는 뚜렷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성전에도 더 자주 참석하라는 느낌도 받았다. 그날 성전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지시로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내가 그 느낌대로 행한다면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1월 초에 나는 서울 성전에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까지 약 한 시간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가야 했다. 게다가 아내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 걸리는 여행을 했다. 한 번은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고, 또 한 번은 나와 함께 종교 교육원 물문경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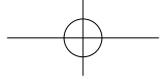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종교 교육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은 내게 시간을 내라고 속삭였다.

이런 일들을 추가하자 매주 일하는 시간을 몇 시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영업 사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객을 몇 명이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근무 시간을 줄인다면 급여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나는 알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받은 느낌을 기억했고 주님을 따르는 데 온전히 전념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은 잘 해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종교 교육원과 성전에 좀 더 정기적으로 참석하자 내 삶에 많은 축복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생겼다. 영을 더 자주, 더욱 가까이 느꼈고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이 커졌다. 아내와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종교 교육원 수업에 참석하면서 큰 유익을 얻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현세적 축복도 받았다. 웬일인지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었다. 수입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거의 두 배나 늘었다.

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제3니파이 13:33)는 사실을 알도록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





질의응답

“경전을 읽고 싶은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동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처

음에는 경전 공부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할 개념이 너무 많고, 인명과 지명도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면 보람찬 경험을 할 것입니다.

선지자 엘마가 설명한 시험을 시도해 보세요.(엘마서 32:27~34 참조) 엘마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준다면]” 그 말씀이 영혼을 키워 주고 이해력을 밝혀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엘마가 약속했듯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엘마서 32:28참조)

동기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경전 공부에 뒤따르는 수많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면 생활 속에서 영을 느끼고, 의문에 답을 얻으며, 깨끗한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욱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관한 간증이 확립될 것입니다.
- 경전을 공부하면 어떻게 신앙이 생기고, 어떻게 성신을 인식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한지, 왜 반대되는 일이 필요한지, 왜 이 지구가 창조되었는지 등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 억지로 읽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경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경전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32장 8절을 읽어 보면 왜 우리가 경전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전 속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즉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몇 분씩 할애하여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르지이 시, 21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더 강한 간증



제가 경전을 읽기 시작한 것은 청년 회장님께서 저한테 개인 발전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부는 몇 주에 걸쳐 매일 경전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고 나서는 경전 읽기를 절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바로 개인 발전 기록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경전을 더 많이 읽으려는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간증이 더욱 굳건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파올라 에스, 16세, 온두라스 코르테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학교 과제가 많을 때에도 그런 일들을 제쳐 두고 먼저 경전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신을 초대하고자 기도를 드리며 그 시간을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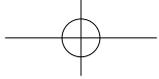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세미나리 교재 덕분에 경전을 더 열심히 읽게 되었으며, 갈수록 그런 열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엘리저 앤, 16세, 일로코스 노르테, 필리핀

하나님의 갑주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열쇠는 바로 소망입니다. 매일 읽겠다고 소망하십시오. 얼마큼 읽었는지 진도표를 기록하고 날마다 같은 시간에 읽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일관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갑주도



없이 전장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뛰어든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앤드류 지, 18세, 미국 메인 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책



경전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계명뿐만 아니라 특히 물몬경은 전쟁과 영웅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로 가득한 위대한 모험서입니다. 경전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브 더블류, 15세, 미국 네바다 주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경전을 단순히 세미나리를 위해, 혹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모험과 고난, 전쟁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신성을 예언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자신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기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캘립 엘, 14세, 미국 유타 주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경전을 읽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에 대답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날마다 경전 속에서 그분을 찾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나아지고,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할 것입니다.

엘베르트 알, 18세, 멕시코 익스타파루카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날마다 한 장이나 두 장쯤 읽으세요. 오래잖아 경전을 읽는 습관이 생깁니다. 저는 보통 매일 저녁에 두어 장을 읽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미나리 수업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곧 축복입니다. 경전을 잘 활용하세요.
테일러 씨, 15세, 미국 워싱턴 주

인생에 필요한 권고

경전에는 우리와 비슷한 역경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전

읽기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를 드리고, 인생에 필요한 권고를 얻을 수 있음을 믿어 보세요. 경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전 속에서 우리는 온갖 시련에 맞설 힘을 찾습니다. 가르침을 잘 배운다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고, 사탄의 율가미를 피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안테르손 에프, 19세, 브라질 상파울루



더욱 즐겁게

“경전 읽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전 읽기가 여러분에게 의무보다 훨씬 더 신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연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읽는다면 마음에 가르침을 얻어 영혼이 고양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곧이어 거룩한 말씀과 생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1910~2008), “The Light within You”, Ensign, 1995년 5월호 99쪽.

다음 질문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2011년 1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01/11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사랑의 순수한 빛

성탄 절기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8: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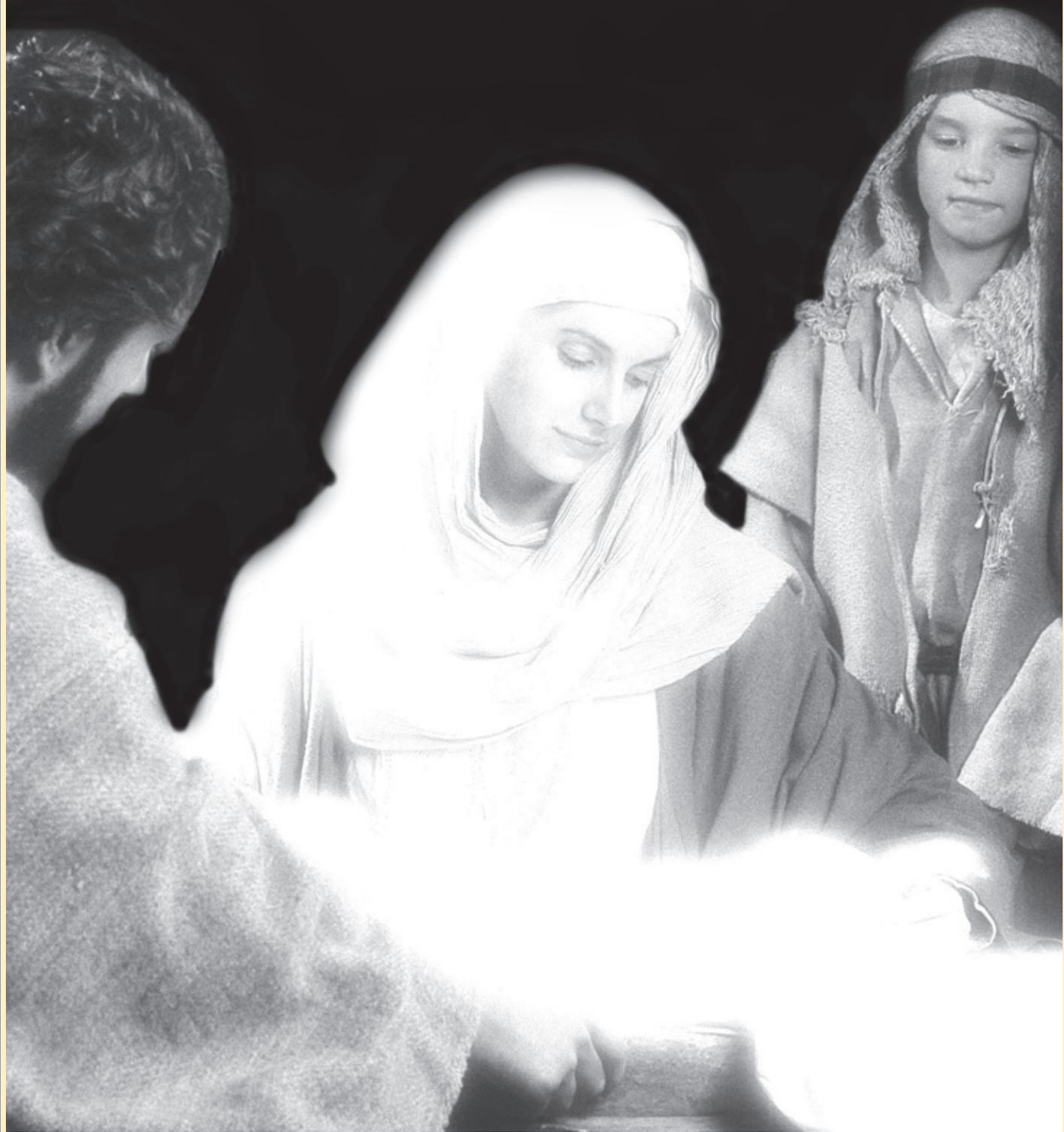


사진 출처: 스티브 번더슨 © 2003



우리들 공간

우 리들 공간에 참여하고 싶다면 사연이나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제목란에 "Our Space"라고 쓴 후 제출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부모님 동의서를(이메일에) 포함시키십시오. 제출물은 분량을 조절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축복인가 부담인가?

교 회 표준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표준이 우리 삶에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회원들을 알 것입니다. 친구에게 표준을 지킴으로써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행복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생각과 마음에서 얻는 기쁨을 표현하세요.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선택의지를 행사함으로써 표준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보여주세요.

페이선스 오(오른쪽), 19세, 프랑스



친구 찾기

나 는 늘 기도의 힘을 믿었다. 처음 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두 달을 기다려서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좋았지만, 나와 믿음이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만나 보았다. 동갑내기도 몇 명 있었지만, 표준이 같은 아이는 없었다. 학교에 나가게 되자 또래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 친구도 몇 명 사귀었다. 한번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일부는 자리를 떴으나 남은 친구들은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했고, 나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아이들은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나는 싫다고 대답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는 더욱 외톨이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며 기도를 드렸다. 몇 주 뒤에 나는 또 다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술을 마시지는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두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술을 마시러 갔다. 나는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표준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표준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조던 에이치, 17세, 미국 텍사스 주



내가 좋아하는 성구

모세서 1:39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지상 생활 동안 제 역할을 다한다면(즉,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선물로 보상하시리라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롤랜드 디(위쪽), 17세, 필리핀, 팡가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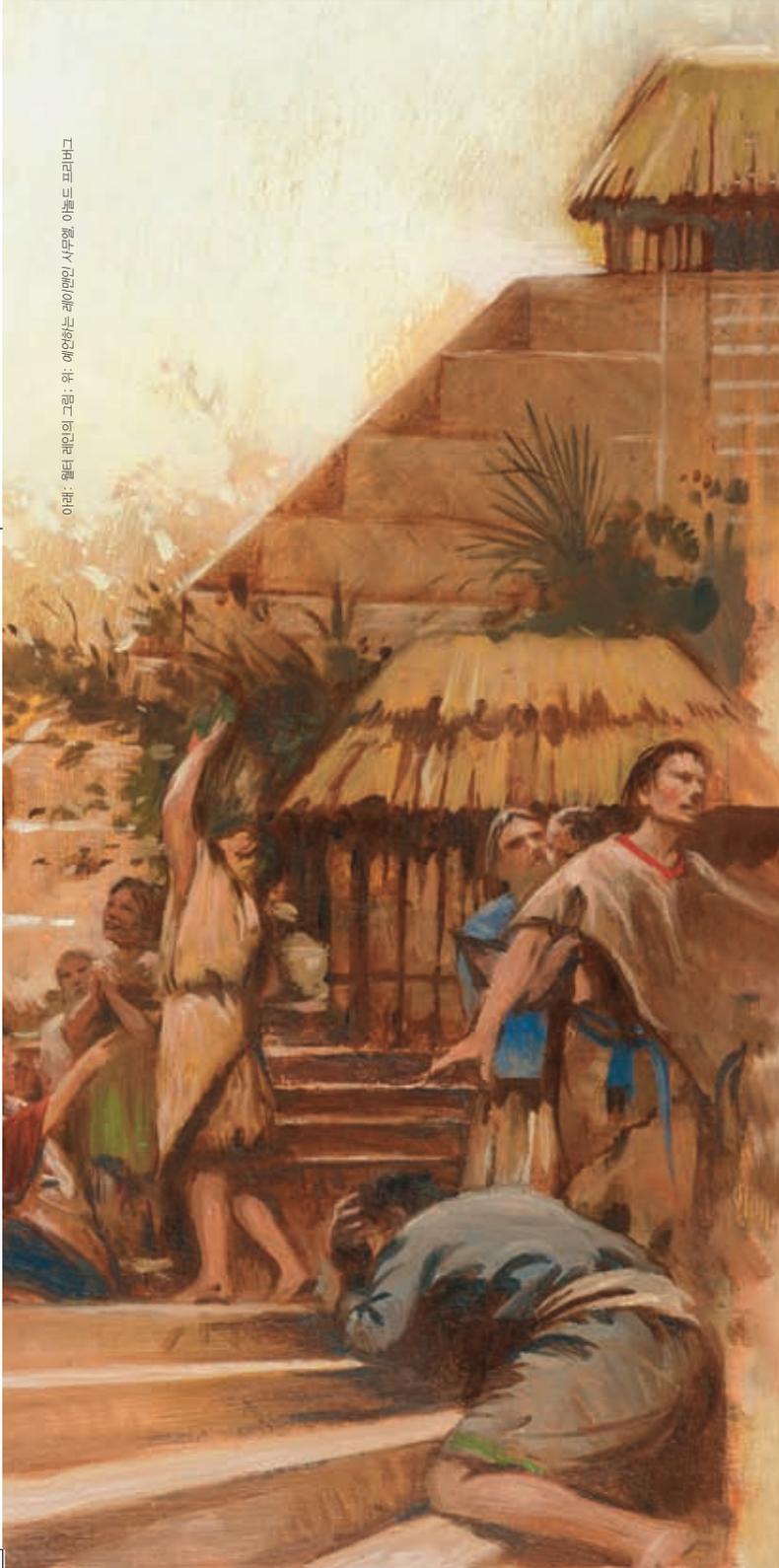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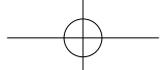


미대륙의 성탄절

웬디 케니

미대륙에서는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인 어둠 없는 밤이
성도들을 구했습니다.





이래: 윌터 레이먼의 그림. 위: 예언하는 레이먼의 사무원, 아놀드 프러버그

어느 날 밤, 갑자기 새로운 별이 하늘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고 한 낮처럼 환한 밤이 이어진다면 분명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레이먼인 사무원이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음을 상징할 위대한 표적과 기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군중 속에 있었다면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무원의 말을 들었다면 분명 그 표적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이라헤물라로 가도록 부름 받은 사무원

한 천사는 레이먼인 사무원에게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가서 니파이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했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미대륙 역사에 따르면 이 무렵에는 레이먼인들이 니파이인들보다 더 의로웠으므로 레이먼인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니파이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세상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셨고, 따라서 그분께서 세상에 나시기 5년 전에 사무엘을 보내어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일 외에도 천사는 제이라헤물라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표적이 무엇일지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5년 안에 “그가 오시는 때의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힐라맨서 14:3) 그는 이 표적이 “[주님이] 나시기 전날 밤”에 나타나리라고 말했습니다.(힐라맨서 14:4) 어둠이 없는 밤을 예언한 후 사무엘은 “새 별 ……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이 뜰 것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힐라맨서 14:5)



성도들이 조롱당하다

사무엘이 예언하고 5년이 흐른 뒤에 적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믿는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 하더라.”(제3니파이 1:6) 믿지 않는 자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정한 날까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백성들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제3니파이 1:9 참조)

5년째 되는 날이 가까워 오자 믿는 이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 근심하기 시작하[었습니다.]”(제3니파이 1:7)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굳건하게 살폈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자 [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8)

예언이 성취되다

믿는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근심하는 백성들을 보고 심히 슬퍼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백성, 곧 조상들의 전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멸망당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날 종일토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제3니파이 1:11~12) 니파이의 간구는 하늘에 닿았고,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1:13) 그날 밤,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해가 저도 어둡지 아니[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15)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새 별도 나타났습니다.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어둠 없는 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동방 박사가 본 새



52 리아 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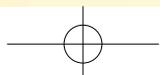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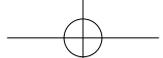
세상의 빛

“자 신을 ‘광명한 새벽별’(요한계시록 22:16 참조)로 칭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하늘에 새 별이 나타났습니다.(마태복음 2:2; 제3니파이 1:21) 베들레헴을 밝게 비춘 이 별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태어나실 때와 장소에 맞게 빛나도록 예언된 것보다 훨씬 전부터 하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요한복음 8:12)이라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의 성스러운 탄생을 알리는 표적으로 어둠이 사라졌습니다.(제3니파이 1:15, 19 참조)”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성지에서”, 성도의 빛, 1991년 2월호, 11쪽.





별에 관한 언급만 간단히 나옵니다. 그들은 이 별을 쫓아 아기 예수께 갔습니다.(마태복음 2:2, 9~10 참조) 유대 지방에서는 양치기 등 몇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누가복음 2:8~18 참조) 하지만 미대륙에서는 “북쪽 땅에나 남쪽 땅에나 서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의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표적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속히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제3니파이 1:17)

왜 미대륙에서 더 많은 사람이 구주의 탄생과 관련된 표적을 보았을까요? 사무엘의 말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니, 이는 이러한 표적들과 이러한 기사들이 이 온 땅 위에 이를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하려 함이요”(헨라만서 14:28).

마침내 구조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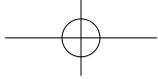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어둠 없는 밤이 지나고 하늘에 다시 태양이 떠올랐을 때, 백성들은 “주어졌던 표적으로 인하여 …… 그 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제3니파이 1:19) 기뻐하는 그들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적들의 손아귀에서 목숨을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죽음 또한 모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를 치르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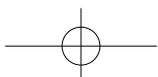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기리지만 우리는 보통 성탄절을 구조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태어나신 날은 진실로 미대륙 성도들이 구조된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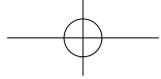
올해 성탄절을 기념할 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구주께서 탄생하신 곳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미대륙에서 일어난 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 탄생하셔서 온 인류가 영적으로 구조 받게 되었지만 미대륙에 살았던 충실한 성도들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주의 탄생은 그분을 주님이자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구조합니다. ■

왼쪽: 그리스도 탄생을 관해 듣는 목자들. 이서 에이 디스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위쪽: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켈터 메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성탄절 날, 점심을
먹기 바로 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거기에는
이웃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수건으로
감싼 큰 그릇을 들고
계셨다.





최고의 선물

그 해 성탄절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앨리슨 세일즈

열두 살 때, 브라질에 살던 우리 가족은 도시에서 떨어진 농장에서 살았다. 그 해 12월, 오빠와 함께 이웃 농장에서 땅콩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여러 날 동안 비가 무척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성탄절을 앞둔 그때, 우리 가족은 식량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성탄절 저녁상에 올릴 음식이 없을까 봐 걱정하셨고, 오빠와 내게 농장 주인에게 가서 임금을 받아 오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성탄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때에 우리는 많지 않은 돈이라도 받아서 가족이 먹을 식량을 조금 마련해 보려 했다.

오빠와 나는 농장 주인 집에 가기 위해 진창길을 걸어서 수 킬로미터를 갔다. 주인 아저씨는 찾아온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쩐 일이니?” 상황을 설명하자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너희에게 줄 현금은 없지만 수표는 끊어 줄 수 있어.” 수표를 받아 든 우리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필요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읍내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읍내에 도착했을 때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성탄절 휴업 중이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가 빈 손으로 돌아오자 어머니와 여덟 남매들은 매우

실망했다. 가진 것이라곤 수표뿐이었는데 그것은 그때 한낱 종이에 불과했다. 성탄절 전야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했고 음식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쌀밥으로 저녁 요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성탄절 아침, 밖에서 이웃들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소리에 잠을 깬지만 식탁에 먹을 음식이 생기는 기적을 고대하며 우리는 집 안에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심 시간 직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 밖에는 이웃 한 분이 보자기로 덮은 엄청나게 큰 우묵한 그릇을 들고 서 계셨다.

“이걸 드리러 왔어요.”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감사히 선물을 받으셨다. 보자기를 열어보니 성탄절 음식이 가득했다. 우리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진정으로 특별한 날에 우리 가족의 배를 채워 준 그 성탄절 음식은 내가 받아 본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웃에 살던 그 아주머니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셨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아주머니를 보내어 성탄절에 우리를 먹이셨다는 사실을 안다. 또한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서는 무한하신 자비와 선하심으로 우리 삶에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이 그 해 성탄절에 배웠듯이 우리는 그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줌으로써 주님께 봉사할 수 있다. ■

달콤한 우유처럼

우리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설탕으로 우유를 달콤하게 하듯 우리의 삶도 감미로워질 것이다.

올란타 모랄레스 포사다스

부 모님께서 아시는 종교 지식에는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나는 그분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종교 원리에 따르며 진지하고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열다섯 살 되던 해인 2005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나는 조금 달라졌다.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했다는 아픔이 그렇게 표출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입원하시기 전에 입맞춤도 해드리지 못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후회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치관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든 괜찮은 일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 나는 세상의 표준에 따라 즐거움을 누렸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내 속은 텅 비어 있었고 뭔가 허전했다.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몰랐다. 학교 성적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생에서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데 있었다. 그 무렵에 우리 가족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께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도 나는 알지 못했다.

밤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

누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웬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괜찮은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아버지께서 어딘가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려웠다. 내 기도는 여러 날 밤에 걸쳐 계속되었다.

마침내 응답이 찾아왔다. 나는 응답을 꿈 속에서 받을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명의 장로였다. 2006년 12월에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게다가 나는 단 한 차례도 토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신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하셨다. 어머니는 그 뒤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침례를 받으셨으며,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조카들과 누이가 침례를 받았다. 나는 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나서 많이 바뀌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훨씬 더 젊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머니의 행복과 평화가 우리 집을 가득 채웠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이곳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간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자매님들은 친구처럼 아주 다정하게 대해 주셨다. 교회는 아주 편안한 곳이었다. 나는 조금씩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기로 결심했다.

나는 2007년 2월 3일 멕시코 베라크루즈 스테이크 우리베 와드에서 훌륭한 두 장로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나는 그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천사이다. 침례를 받은 날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기에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지워졌다. 나는 우울증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났고, 이제 공허함은 사라졌다. 내 영혼 안에는 이제 놀라운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참된 복음으로 우리 가족과 나는 커다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친구들도 찾았다. 계속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이제 참된 복음과 영이 있기에 나는 매일 즐겁고 평온하게 생활한다. 이제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께 여쭙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만일 우리가 성전에서 베푸는 의식을 받아들였다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쉬고 계실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가끔 예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 세상과 그 쾌락, 탈선에서 얻는 것보다 더 위대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온다. 복음이 가르치는 것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일전에 이메일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하나님은 우유에 넣는 설탕과 같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였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탕은 모든 것을

달콤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참된 복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설탕으로 우유가 달콤해지듯 우리 삶은 감미로워질 것이다. ■

엠마오의 그리스도 그림의 부분 확대. 칼 허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헬레네데 프레데릭스보르 소재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 우유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시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비회원 초대 모임

“참으로 무릇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
곧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들었나니”(앨마서 46:15).

앨 리슨은 감독님께서 이번 성탄절에는 와드에서 비회원 초대 모임을 열겠다고 발표하실 때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은 성탄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가고 성탄절 축하를 부르는 일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은 아기인 주님을 떠올려 보는 것도 무척 즐겁습니다.

감독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자 앨리슨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회원 초대 모임을 하는 대신, 올해에는 그 동안 전통적으로 해 온 와드 성탄절 축하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앨리슨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축하 모임이 없다고요?” 앨리슨이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와드 성탄절 축하 모임은 앨리슨이 성탄 절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손가락을 앨리슨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우리 친구와 이웃 중 일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은 그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인 에리카가 물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앨리슨은 에리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여쭙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문’이나 ‘후기 성도’라는 이름에 관심을 집중한단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름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그래서 이튿날 학교에서 앨리슨은 에리카에게 신앙개조 제1조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에리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너희를 물문이라 부르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앨리슨은 다시 감독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비회원 초대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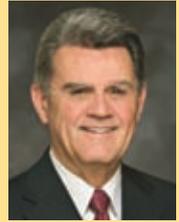
예수님 탄생 장면 모형을 가져오게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성탄 장면을 재현할 것입니다.”

비회원 초대 모임이 다가오자 앨리슨은 흥분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연로하신 이웃 한 분을 비회원 초대 모임에 초청하셨습니다. 앨리슨은 에리카를 초대했습니다.

모임이 열린 날 밤, 앨리슨은 신문에 성탄 장면 모형을 싸시는 엄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앨리슨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차고 에리카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앨리슨과 에리카는 일본과 오스트리아, 필리핀, 그밖에 여러 나라에서 온 성탄 장면 모형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두 아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청남 청년들이 성탄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게리 제이 코울먼 장로, 칠십인, “엄마, 우리가 기독교인이예요?”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94쪽.



살아 있는 암소와 양, 암염소까지 있었습니다. “낙타만 빼고 다 있어.” 앨리슨이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모두에게 예배실로 모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슨과 에리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그려보세요(Picture a Christmas)”¹와 “성탄 축하”²를 불렀고, 워드 합창단이 메시아 일부를 공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내년에는 어찌면 오실 수 있겠지.” 앨리슨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앨리슨은 비회원 초대 모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성탄절 축하 모임을 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은 이제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

- 주
1. “Picture a Christmas”, 어린이 노래책(영어), 50쪽.
 2. “성탄 축하”, 어린이 노래책, 32쪽.

상황: 그림과 누벨드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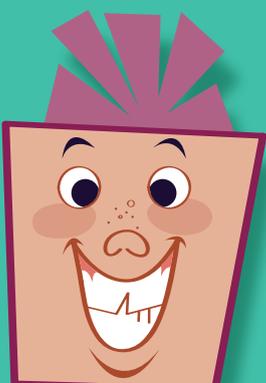
따스하게 맞아들이는
인사



어서 오라는 초대



도움의 손길



기운을 북돋아
주는 웃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진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이라 불리는 값비싼 향료와
몰약이라는 연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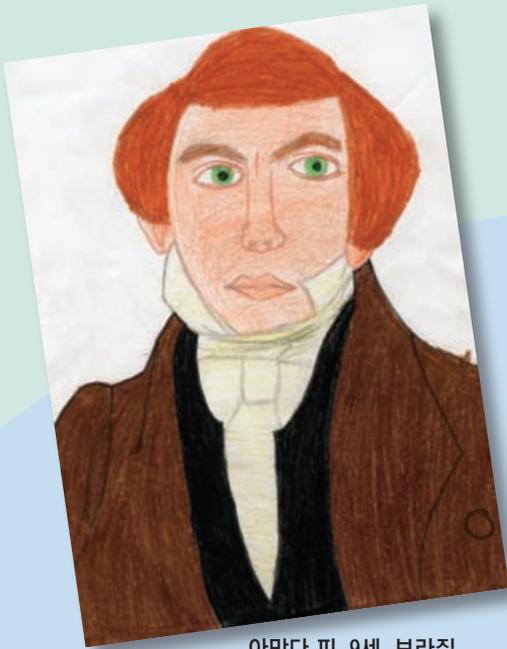
간증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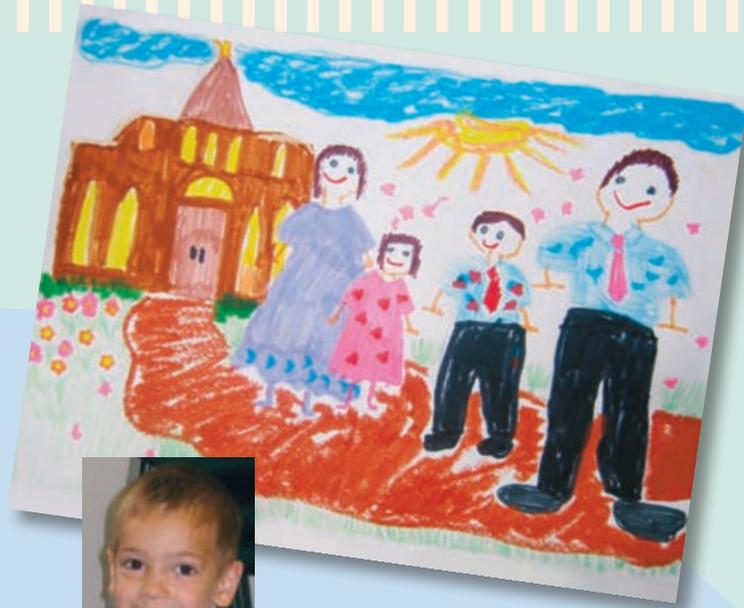
심화: 브라이언 비즈



우리들 이야기



아만다 피, 9세, 브라질



마크 케이, 4세, 러시아

우리 가족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무척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함께 놀아주시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제게 팬케이크도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도 데려다 주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계란 부침을 만듭니다. 음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며, 계명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유안-웨이, 7세, 타이완



어머니의 구조 보트

저는 네 자녀 중 맏이입니다. 저는 네 살, 두 살, 그리고 11개월 된 꼬맹이들을 돌보시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 즐겁습니다. 저는 동생들에게 초등학교 노래를 불러 줍니다. 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에게 "구조 보트"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동생들과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 집 가정의 밤은 최고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깝게 느낍니다.

빅토리아 엠, 10세, 스페인



나의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산드라 태너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면 리하이가 생명 나무 시헌에서 본 일부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리하이는 사람들이 쇠막대를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막대는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 즉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쇠막대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상에 오셨으며, 또한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해에 배운 대로 꾸준히 실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간증을 얻을 것입니다

2010년 12월 경전 일지

교리와 성약 76편 2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22절을 외웁니다.



다음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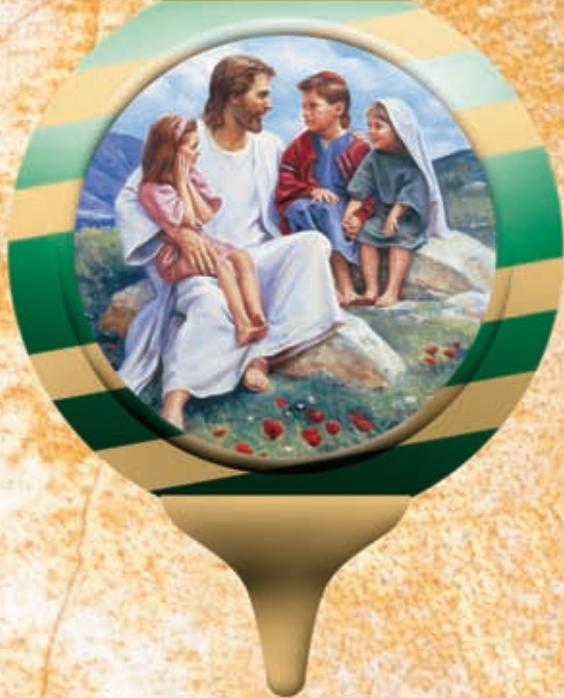
- 다른 사람이 교리와 성약 76편 22절을 외우도록 돕습니다.
- 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께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 즐겨 인용하는 성구를 보여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63쪽에 나오는 장식물들을 오려 내고, 각각에 적힌 성구를 찾아봅니다. 장식물을 성탄절 트리나 집안에 매달아 놓고 보면서 구주를 떠올립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새로운 노래를 배웁니다. 성탄절 노래 혹은 찬송가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이 성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한 일을 일지에 적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

원문: 제니퍼 존스, 오른족; 장식물 삽화: 토마스 에스 치일드; 칼럼의 이야기 시간, 덴 비슨; 017 예수께 경의를 표하는 시몬 그린; 0187. 복사 금지; 제림, 해리 앤더슨 © FR; 미림이와 부활하신 주님, 해리 앤더슨 © FR; 배영 © DYNAMIC GRAPHICS



마태복음 19:14



이사야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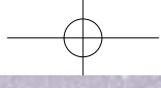


욥기 19: 25



교리와 성약 76:22





구유에 농을 지푸라기

제이콥 에프 프랜시스
실화에 근거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모로나이사 7:13)

마 이클은 작고 보드라운 지푸라기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보드랍고 따스한 침대에서 성탄절 전날을 보내시게 되어서 기뻐.’

지난 주 내내 마이클은 이 작은 구유에 정성스럽게 작은 지푸라기를 한 가닥씩 채워 넣었습니다. 마이클은 이번에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이해할 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엄마는 가정의 밤 시간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공과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자녀들에게 작고 텅 빈 구유와 조그마한 아기 예수 인형을 주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은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야.”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는 거란다.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구유에 지푸라기를 한 가닥씩 넣어 보렴. 친절을 많이 베풀수록 성탄절 전날 구유는 더 포근한 곳이 될 거야.”

‘내 구유에 누구보다 많은 지푸라기를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마이클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지푸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바닥을 쓰는 걸 도와드릴까요?” 부엌을 청소하시는 엄마를 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곰 인형 찾는 걸 도와줄게.” 장난감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남동생에게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도 눈을 치우고 싶어요.” 차고 앞을 쓸려고 나가시는 아빠께



“기쁨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에서 솟아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 “풍성한 삶”, 성도의 빛, 1979년
6월호, 3쪽.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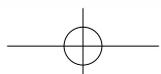
며칠 만에 마이클의 작은 구유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지푸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이클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이클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돕고도 구유에 지푸라기를 넣는
일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착한 일을 하면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깃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발하는
은은한 불빛 속에서 마이클은

자신의 조그마한 아기 예수를
지푸라기로 차고 넘치는 구유에
살포시 눕였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이클은
최고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다이앤 엘 멩겐

베들레헴 근처 푸른 언덕 중턱으로 어둠이 살며시 내려왔습니다.

때는 봄이어서 많은 어린 양이 새로 태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저녁 채비를 하기 전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분주히 점검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분주했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고향으로 가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행객 중에 있었던 요셉과 아내 마리아는 밤 동안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들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구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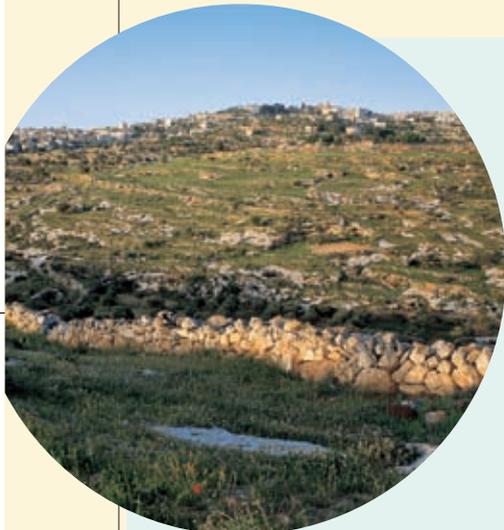
마리아는 깨끗한 포대기로

아기를 감쌌으며 부드럽고 깨끗한 건초를 구유에 깔아 작은 침대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이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예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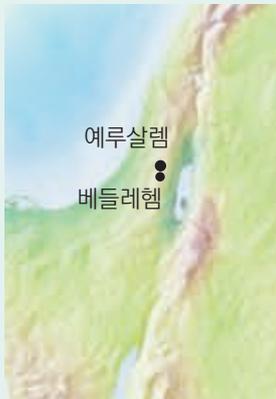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기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라 불리는 여호와는 지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빛났습니다.

언덕 중턱에서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주위 사방으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다윗성: 골리앗과 싸우고 후에 왕이 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성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
베들레헴

원문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그림: 부분 확대. 하버드 대학교. C. HARRISON CONROY CO.의 허락을 받아 개제: 베들레헴 사진 촬영: 스톱트 프록 타: 지도: MOUNTAIN HIGH MAPS © 1993 DIGITAL WISDOM. 삽화: 샘 로울러: 동방 박사 그림: 톰 맨 © 1999 FR





별: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나라에서 살던 박사들은 새로운 별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고 박사들은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될 어린 예수를 찾아 왔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불리는 귀한 선물을 어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구유: 동물이 먹을 음식을 담아두기 위해 나무나 돌로 만든 상자 또는 여물통.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자 놀라워하던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은 양 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

*마태복음
1:20~25; 2:1~11
및 누가복음
2:1~20에서.*



특별한 손님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3)

로레인 리차드슨
실화에 근거

“오늘 가정의 밤에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란다.” 아침 식사 때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다니엘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누가 오시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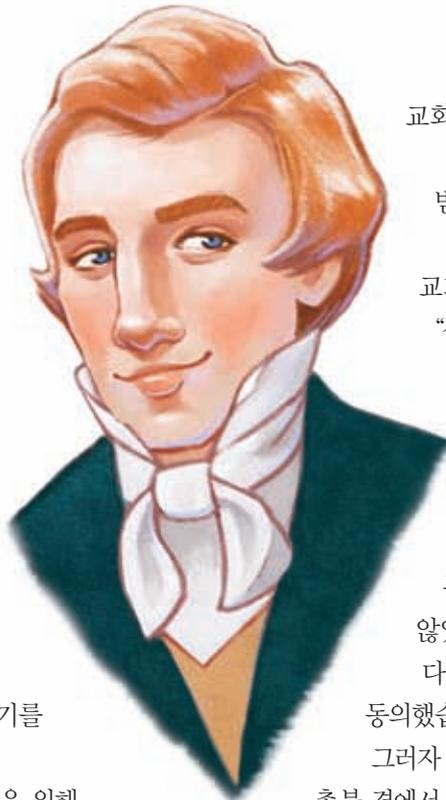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이요. 만나보면 정말 반가울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가정의 밤에 누가 오실지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어쩌면 그 특별한 손님은 성탄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함께할 특별한 손님은 조셉 스미스란다. 그분은 12월 23일에 태어나셨어.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재현해 보자꾸나.”

가족들은 모두 자기가 맡은 배역을 위해 소품과 의상을 모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가족들이 엄마와 연습할 동안 아빠와 함께 연습했습니다. 잠시 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동생 매튜는 조셉 스미스 역을 맡게 되어 들떴습니다. 다니엘과 엘리자베스는 조셉의 가족 역을 맡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다른



교회 목사 역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여기로 오세요! 우리 교회가 옳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조셉 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왜 목사들이 한결같이 서로 다른 말을 할까, 누구 말이 옳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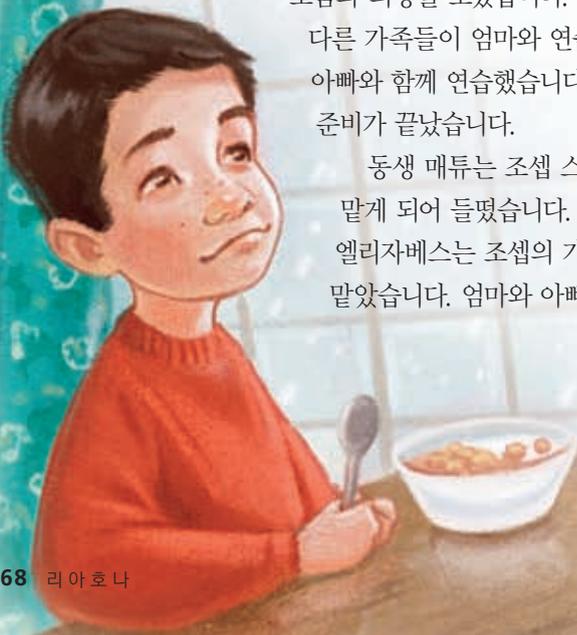
다니엘과 매튜와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양초를 켜셨습니다. 아빠가 촛불 곁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자 다니엘은 조셉 스미스가 곁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다음 아빠는 첫번째 시현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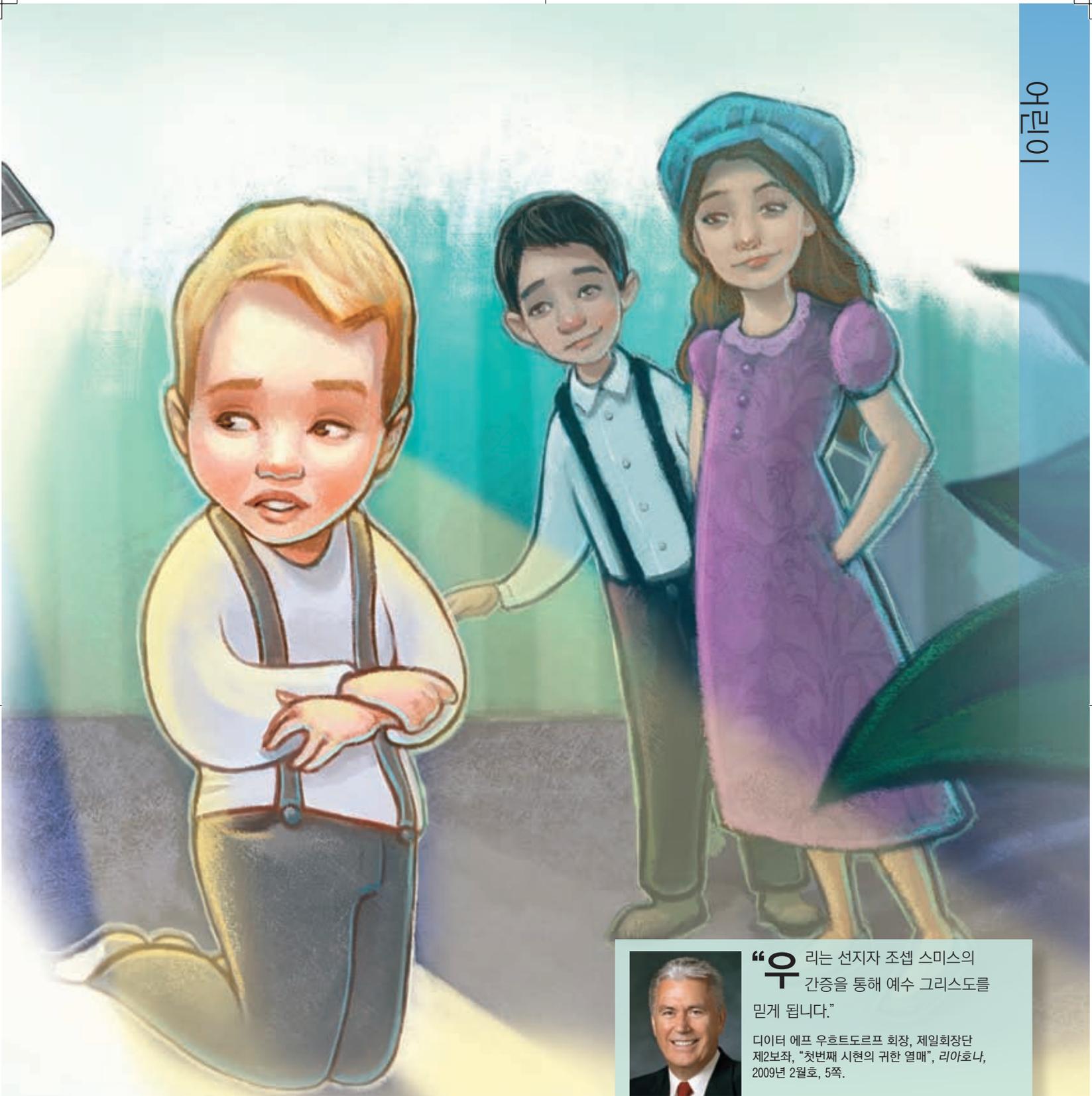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매튜도 기도하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매튜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빠의 도움으로 암기한 대사를 경건하게 읊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지상에 회복할 선지자로 조셉 스미스를 택하셨단다. 조셉은 그 임무를 충실히



로레인 리차드슨
실화에 근거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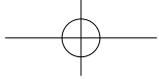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첫번째 시험의 귀한 열매”, *리아호나*, 2009년 2월호, 5쪽.

수행했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웃에 사는 친구인 앤디가 놀러 왔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조셉 스미스와 함께한 가정의 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앤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오래 전에 살았던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를 알아. 넌 그분이 누군지 아니?” ■





첫 번째 성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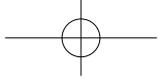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실화에 근거



성화: 이도 포스트



4. 날이 갈수록 나무 아래에는 더 많은 선물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붉은 종이에 녹색 리본으로 포장된 그 첫 번째 선물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어디에서 온 선물일까요?



부모를 위한 제언

상 자를 구해 여러분과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들을 넣는다. 시, 그림, 종이로 만든 별, 장난감 양, 천사 장식, 또는 자녀들이 주님의 탄생을 상기할 만한 물건을 넣는다. 선물을 포장하고 성탄절에 열어 본다.

5. 성탄절 아침, 트루먼은 달려나가 형들과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7.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림과 예수님 탄생에 관한 시와 별을 하나씩 하나씩 꺼냈습니다. 트루먼은 모두에게 그림을 보여 주었고 아버지께서는 시를 읽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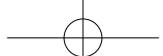


6. 트루먼은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나무 아래 놓인 선물들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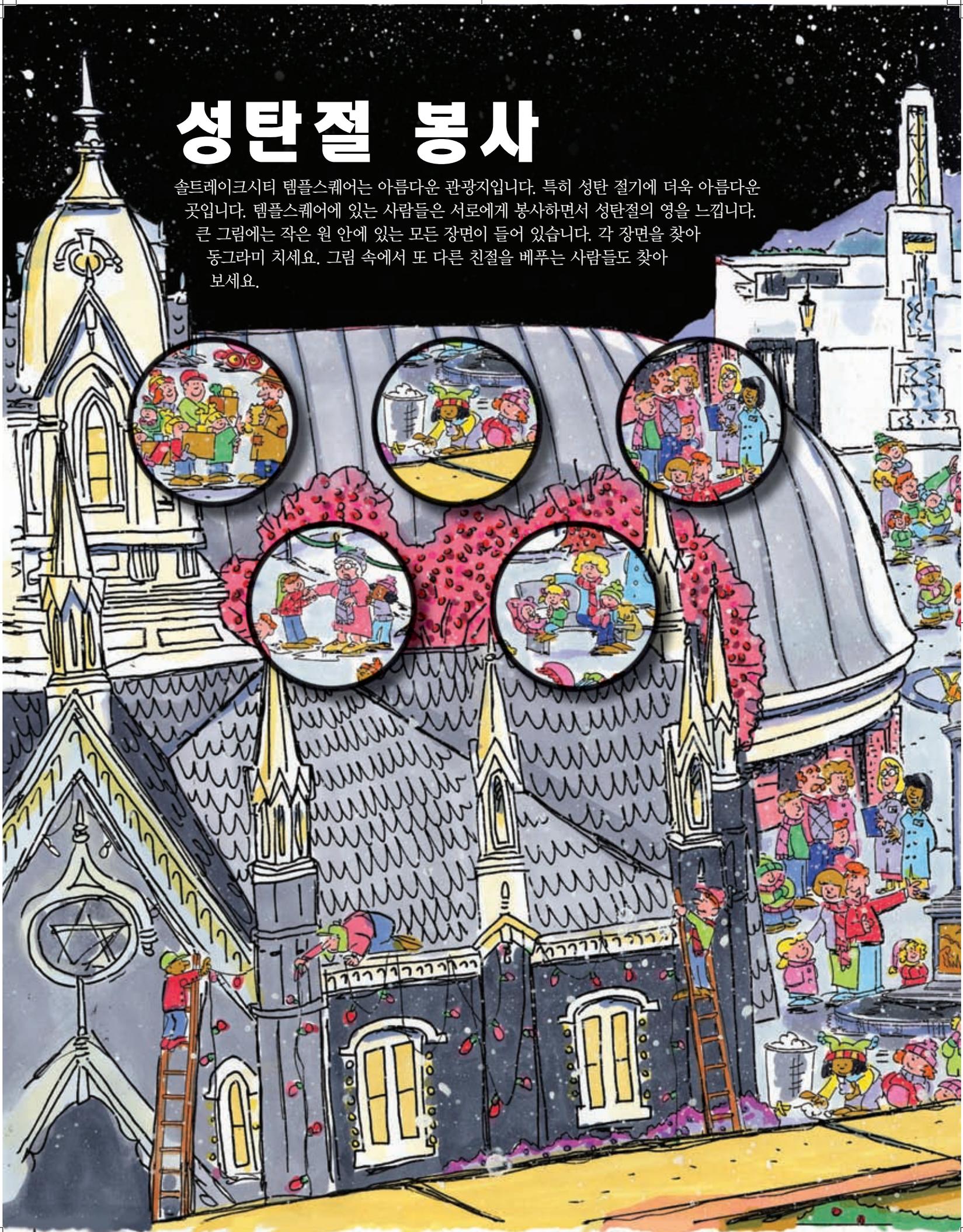
8. 트루먼은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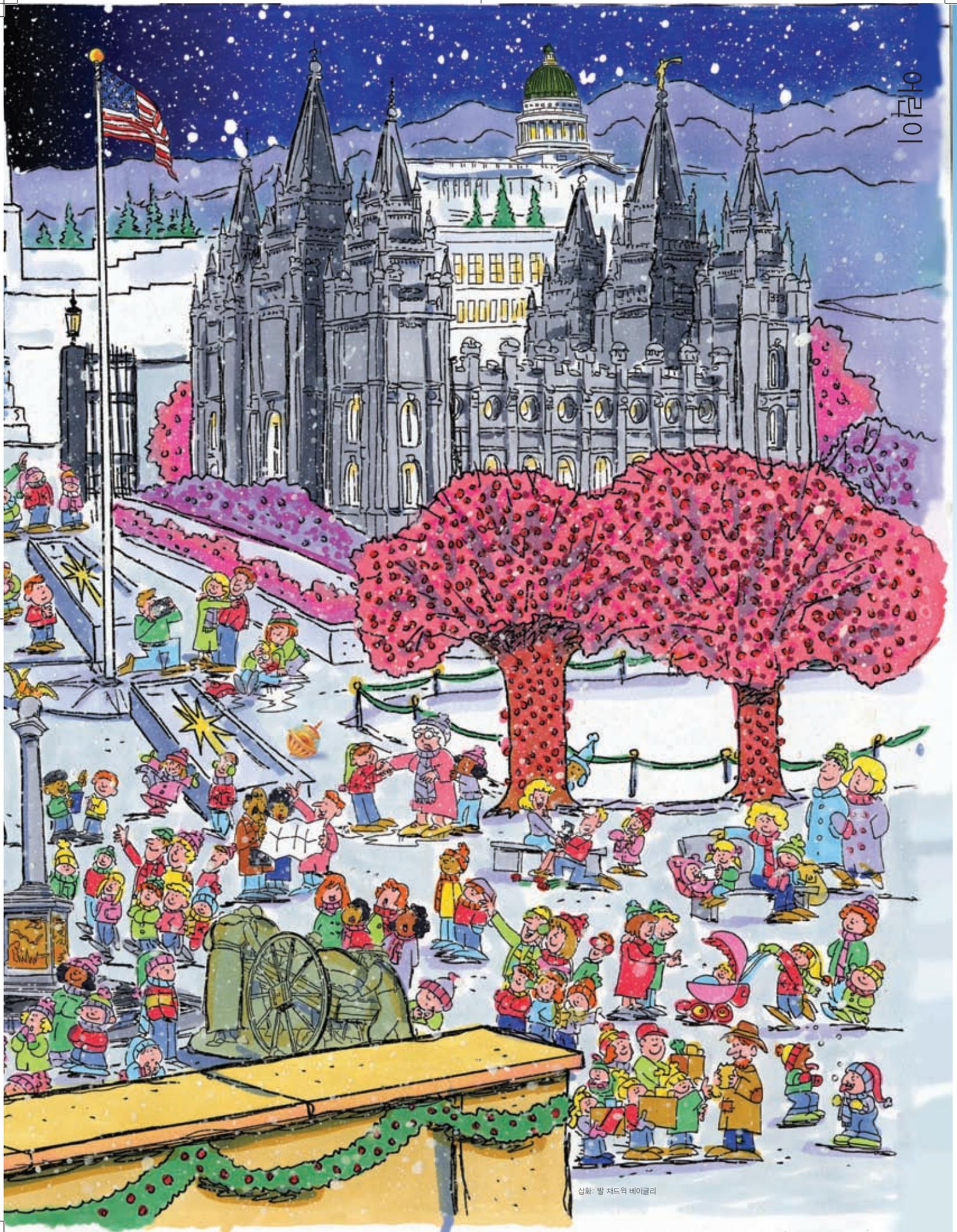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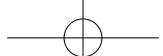




성탄절 봉사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는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특히 성탄 절기에 더욱 아름다운 곳입니다. 템플스퀘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성탄절의 영을 느낍니다. 큰 그림에는 작은 원 안에 있는 모든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각 장면을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림 속에서 또 다른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찾아 보세요.





삽화: 밥 채드윅 베이글리





교회 소식

온라인에서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다

브리애나 올라비슨
교회 잡지

최 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던 구도자가 한두 번 방문 후에 접촉을 끊어 버리는 일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그 구도자들에게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본 후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6년 전, 영어로 “물론”이란 용어를 검색 엔진에 입력하면 80퍼센트가 부정적이거나 부정확한 결과가 나왔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개선되어 어떤 나라에서는 “물론”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가 현재 80퍼센트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교회를
알아보면서
회원들은 온라인
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교회 공식 웹사이트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나누는 비공식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블로그로 자신의 가치관을 나누며, 소셜 네트워크(온라인에서 인적 관계망 형성과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윙킨이) 사이트에서도 복음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회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덕분에 인터넷은 사람들을 전임 선교사에게로 데려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많은 교회 회원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준 권고에서 영감을 받았다. “인터넷 대화에 참여하여 복음을 나누고 간단하고 명백한 말로 회복된 메시지를 설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회 회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새로운 Mormon.org

교회 공식 웹사이트이자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선교 사업 도구인 Mormon.org는 사용자들이 개인 프로필을 이용해 교회 회원들과 직접 접촉하도록 새 단장을 하고 있다.

새로운 Mormon.org는 2011년 중반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언어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믿음과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 방문자들은 이 프로필을 보고 교회 회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으며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교회 선교사부 인터넷 및 마케팅 책임자인 론 윌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방문자들이 교회 회원들과 친해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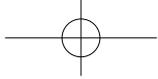
(이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새로운 Mormon.org에 마련된 다른 기능은 다음 기사를 참조한다.)

더 모어 굿 파운데이션(The More Good Foundation)

더 모어 굿 파운데이션은 온라인 상에서 교회에



사진 촬영: 윌드 앤더슨



대해 긍정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이 단체는 교회에서 후원이나 지시를 받지 않지만 온라인 상에서 교회의 입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더 모어 굿 파운데이션은 검색 엔진과 결과 도출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기 있는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이 검색 결과 화면에 한 사이트 당 두 자리만을 허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LDS.org에 관련된 정보가 수없이 많더라도 검색 결과는 단 두 개만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이트가 등장할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 단체인 교회와 상관 없는 사이트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조직을 신뢰하기보다 또래 집단에게서 의견을 구합니다.” 더 모어 굿 파운데이션 회장인 조나단 존슨 형제가 말했다.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 왜 지도자들이 회원인 우리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적인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한 장벽을 극복하게 됩니다.”

더 모어 굿 파운데이션은 1,400개가 넘는 URL(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사이트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옮김) 권한을 획득했으며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 원리를 토론할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도움을 구했다. 그들은 12개 언어로 320개 사이트를 만들었고 유튜브 상에 1,9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려 교회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찾을 기회를 더 많이 선사했다.

블로그

웹사이트 전체를 만들 시간이나 기술이 없는 회원들에게 블로그는 편리한 대안이 된다. 블로그(“웹로그”의 줄인 말)는 관리도 쉽고 대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웹사이트이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 회원들은 가족 및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블로그를 이용한다. 블로그

작성자들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게시하기에, 블로그에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도 자연스럽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누는 한 젊은 어머니는 열성 팬들을 얻었다. 스테파니 닐슨 자매는 nieniedialogues.blogspot.com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하여 가정 주부로서 자신의 삶을 연대별로 정리했다. 스테파니 자매는 2008년, 비행기 사고를 겪고 눈에 띄는 흉터를 얻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전념하게 된 후 블로그에 계속 새로운 정보를 실었다.

스테파니 자매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복음을 나누고 LDS.org로 연결되는 큰 버튼을 올려놓았다. 또한 방문자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인 몰몬경을 “세상 어느 곳이든지” 무료로 보내 주겠다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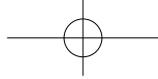
사회적 매체 웹사이트

교회 회원들은 수백만 명이 접속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도 복음을 나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정보가 빠르고 쉽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복음을 나누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LDS.org에서 Gospel Library 난에 있는 모든 항목에는 “공유” 기능이 있다.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 교회 잡지 기사와 연차 대회 말씀, 공과 교재를 다양한 사회적 매체 사이트에 쉽게 연결해 나눌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교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팬이 될 수도 있다. 교회는 28만 명이 넘는 팬이 있고, 몰몬경은 16만 2천 명 이상의 팬이 있으며, 사용자 수천 여명이 기타 교회 관련 페이지에 가입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가입하고 참여하면 친구들은 통보를 받는다. 따라서 페이스북 사용자 친구 수십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교회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교회 회원들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메시지(“트윗”)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복음을 나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2009년 4월 연차 대회 주간 동안



연차 대회가 트위터 탑 트렌드(Twitter's top trend)에 올랐는데,² 이것은 연차 대회가 다른 어떤 주제보다 더 많은 트윗에 언급되었음을 뜻한다.

교회는 또한 인기 동영상을 올리는 웹사이트인 유튜브에도 교회 존재를 인식시켜서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다른 모든 동영상처럼 모든 물론 메시지 동영상은 쉽게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나눌 수 있다.

인터넷은 한 세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나누는 역량도 커질 것이다. ■

주

1. 엠 리셀 벨라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음을 나눔",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교회 소식 1쪽.
2. "Top Twitter trend: LDS General Conference", Mary Richards, ksl.com, 2009년 4월 6일. <http://www.ksl.com/?nid=148&sid=6074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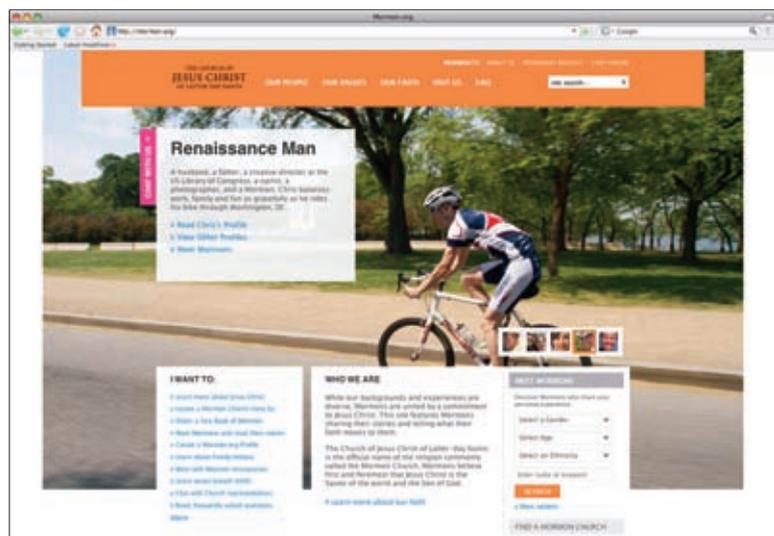
Mormon.org 새 단장으로 회원과 구도자들이 연결되다

2011년에 개설된 이후로 Mormon.org는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얻도록 도왔으며, 그 답변은 주로 교회 본부에서 제공했다.

완벽하게 새 단장을 한 최근 Mormon.org에도 많은 답변과, 선교사와 접촉하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온라인 프로필 기능 덕분에 전 세계 교회 회원들에게서 많은 답변이 오고 있다.

새로운 사이트가 2011년 중순에 영어 이외 언어로 개설되면 방문자들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배경과 기타 요건으로 회원 프로필 수천 개를 분류하여 자신과 유사한 교회 회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자들은 간증을 읽고, 추가 질문을 하고, 경우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접촉할 수 있다. 구도자들은 이렇게 또래들과 접촉함으로써 좀 더 친근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

선교사부 최고 책임자인 리차드 지 힝클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에서 정보검색을 할 때 사람들은 어느 단체, 특히 종교 단체가 직접 밝힌 입장보다 또래 집단의 의견을 더 신뢰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회원 프로필은 새로운 Mormon.org에서 매우 유용한 몫을 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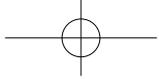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새롭게 단장한 Mormon.org는 2011년 중순에 영어 이외 언어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Mormon.org는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뉘는데, 각각은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 자주 묻는 질문과 같은 교회의 특정 부분에 대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성도들

이 난에 있는 회원 프로필을 통해 구도자들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교회 선교사부 인터넷 및 마케팅 책임자인 론 윌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물문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내용이 물문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란 회원들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려준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가족, 교육, 봉사, 가족 역사와 같은 교회의 몇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 난을 통해 구도자들은 교회 교리와 회원들의 생활 방식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란 교회의 기본 교리를 설명한다. 이 사이트 난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은 “물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 난은 또한 사이트의 다른 영역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사이트 방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는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회복, 조셉 스미스, 구원의 계획, 물문경과 기타 주제에 대해 배운다.

자주 묻는 질문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개인 프로필에 있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 난의 내용을 만든다. 회원들은 자주 묻는 질문에 직접 답하여 방문자들이 회원들로부터 교회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다. ■

뉴스 속에서

간단한 오르간 악보,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오르간 경험이 부족한 오르간 반주자를 위한 “비상 준비 키트”를 이용하면 더 쉽게 성찬식 모임 반주를 해낼 수 있다. 피아노 반주자가 오르간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자료인 *Manual-Only Hymns for Organ*(오르간용 찬송가 건반 악보)와 *Transformations*(변형곡)이 제작되었다.

*Manual-Only Hymns for Organ*은 인기있는 찬송가 38곡을 페달 없이 연주하도록 편곡한 모음집이다. *Transformations*에는 똑같은 38개 찬송가를 전주와 후주 음악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삽입할 수 있는 도입부와 끝부분이 들어 있다. 이 두 자료는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music.lds.org를 방문하여 **Learning Materials**를 클릭한 다음, **Accompanying Others**에 들어가서 **Manual-Only Hymns for Organists**를 클릭한다. 스프링 제본한 악보책은 <http://creativeworks.byu.edu/catalog/ViewItem.aspx?item=SM021>에서 구할 수 있다.

간단한 피아노용 찬송가와 달리 이 반주곡들은 각각의 건반에서 연주하거나 오르간의 베이스 커플러 버튼(반주자가 연주하는 가장 낮은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자동으로 연주하게 하는 버튼-옮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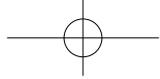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양손 반주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지침 자료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은 오르간 연주 학습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오르간 연주 경험이 없거나 배울 시간이 없는 피아노 반주자가 오르간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08년 말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태버내클 합창단 전 오르간 반주자인 로버트 쿤딕의 지휘 하에 합창단 현 오르간 반주자인 리처드 엘리엇과 브리검 영 대학교와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오르간 연주자들의 도움으로 추진되었다.

세부어와 타갈로그어 경전,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이제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포함된 세부어와 타갈로그어 경전 합본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책들을 보려면 scriptures.lds.org/ceb와 scriptures.lds.org/tgl에 접속한다.

이 사이트에는 각주, 지도, 사진이 들어 있으며 독자들은 성구를 표시하고 핵심어 검색도 해 볼 수 있다. 경전 사이트는 현재 17개 언어로 개설되어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가 추가될 계획이다. ■



성전 소식

밴쿠버 성전 헌납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0년 5월 2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 근교에 위치한 교회의 131번째 성전을 헌납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대회 두 달 뒤에 열린 일반 공개 동안 약 4만 명이 성전을 둘러 보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미국 워싱턴 주 북부 회원들이 이용할 것이다. 교회가 현재 캐나다에 계획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성전은 여덟 개이다.

애리조나 힐라 밸리 성전 헌납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0년 5월 23일, 세 개 모임에서 애리조나 힐라 밸리 성전을 헌납했다. 이 성전은 애리조나 남동쪽과 뉴멕시코 주 남서 지역 회원들이 이용한다. 성전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이 성장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애리조나 남동쪽에 위치한다. 힐라 밸리 성전은 애리조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이며, 애리조나에 세워지기로 발표된 성전은 두 개(애리조나 길버트와 애리조나 피닉스)가 더 있다.

세부 시티 성전 헌납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0년 6월 13일, 필리핀에서 두 번째 성전을 헌납했다. 필리핀 세부 시티 성전은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약 563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비사야스 및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2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할 것이다. 2주 간 열린 일반 공개에는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헌납식 전날 저녁 문화 행사에는 3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공연을 선보였다.

유타 주 브리검 시티에서 열린 기공식

2010년 7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유타 브리검 시티 성전 기공식이 열렸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이 감리한 이 기공식은 성전 구역에 있는 전 스테이크 센터에 방송되었다. 유타 브리검 시티 성전은 2009년 10월 3일 연차 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유타 주에서 운영되는 열네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키예프 성전 헌납

2010년 8월 2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성전 구역 전역에 방송된 세 개 모임에서 헌납되었다. 일반 공개는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열렸으며, 8월 28일에 문화 행사가 있었다. 성전은 1998년 7월 20일에 발표되었고, 건축은 2007년 6월 23일에 시작되었다. 이 성전은 동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성전이며, 유럽 대륙에서는 열한 번째 성전이다. 키예프 성전은 13개 국가 회원들이 이용한다.

라이에 성전 재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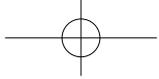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마친



사진 촬영: 애스톤 시클링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이 2010년 8월 29일에 헌납되었다.

하와이 라이에 성전이 2010년 11월 21일, 세 개 모임에서 재헌납되었다. 이에 앞서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일반 공개가 열렸으며 11월 20일에는 문화 행사가 있었다. 재헌납은 라이에와 코나 성전 구역 내에서 방송되었다. 성전은 1919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헌납한 교회의 다섯 번째 성전으로 1978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재헌납했다. ■



애독자 편지

리아호나가 모든 것을 바꾸다

매달 리아호나에 기사를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들은 매우 유익하며 제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심하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리아호나 기사를 읽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에드가 셀레스티노, 미국 텍사스 주

온라인을 통한 관계 유지

저는 1990년에 침례 받은 이후로 늘 교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평화 유지군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지금은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온라인에서 잡지를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큰 영감을 받았습니니다.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강한 영을 느낍니다. 성찬을 취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라인 잡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루쿰비 오리몰로예, 나이지리아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기사 모집

성탄절을 기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프거나, 고인을 애도하거나, 군 복무 중이었거나, 멀리 학교에 있었거나, 가족과 친구로부터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500자 내로 적어 "Christmas Celebrations"라는 제목으로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 26쪽: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성신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나눈다. 이 예들 중 몇 가지를 읽은 다음, 가족에게 성신을 느낀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성신의 축복을 나타내는 물건을 전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신은 우리에게 평안(요한복음 14:26 참조)을 주기 때문에 담요와 같고, 우리를 안내(니파이후서 32:5 참조)하기 때문에 나침반과 같으며, 속죄(니파이후서 31:17; 제3니파이 27:20 참조)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는 때를 알려 주기에 비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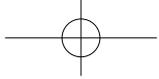
“**칠십인의 성탄절 전통**”, 32쪽: 기사에 나열된 몇 가지 전통을 읽은 다음, 가족에게 좋아하는 성탄절 전통이 무엇인지 묻는다. 여러분이 채택하고 싶은 새로운 전통이 있는가?

“**특별한 손님**”, 68쪽: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처럼 여러분은 첫번째 시현에 대해 배움으로써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연차 대회 말씀을 읽어도 좋다.(예를 들어, 태드 알 콜리스터, “조셉 스미스-회복의 선지자”, 리아호나 및 Ensign, 2009년 11월호, 35~37쪽을 참조한다.)

구주의 사명에 대한 이해

가장 좋았던 어느 가정의 밤을 통해 우리는 구주의 삶과 사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가족 모두에게 구주의 손과 눈과 발과 입에 대한 성구를 찾아보라고 한 후, 그 성구들을 서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구주의 손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분의 발은 물 위를 걸으셨으며, 그분의 눈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와 그분이 치르신 완전한 희생에 대해 토론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 토론하자 영이 임했으며, 우리 가족은 각자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다.

데이비드 알 앤더슨, 미국 유타 주 ■



포도원에서 보내는 성탄절

래리 힐러
교회 잡지

12월 하순, 동트기 전 어둠 속에서 냉랭한 안개가 헐벗은 포도나무를 감싸고 있다. 포도원은 한 구역을 제외하고는 적막하기만 하다. 그 한 구역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타닥타닥 밝게 타오르는 모닥불로 훈훈하다. 성탄절 아침, 이 계곡 밖의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따뜻한 이불 속에 있거나, 성탄절 트리 주위에 모여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도원에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선물을 주기 위해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마데라에 있는 이 포도원이 교회 복지 생산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면 이 선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해마다 이 포도원에서는 약 18만 킬로그램이나 되는 건포도를 생산해낸다. 수확량의 절반은 감독의 창고로 들어가 창고 선반을 채운다. 나머지는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 봉사로 사용된다. 여덟 개 스테이크 내의 와드와 지부들은 수행해야 할 특정한 일과 돌보아야 할 포도나무를 배정받았다.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은 가지치기이다. 지난 절기에 자라서 얽힌 덩굴은 잘라내고, 다음 수확을 위해 줄기 몇 개만 남겨 두어야 한다. 겨울 동안 이런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포도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버린다. 덩굴이 너무 많아지면 뿌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무를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열매가 너무 적게 맺혀서 수확량도 크게 감소한다.

이 사람들이 성탄절에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와드 회원들은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후기 성도들이 무리 지어 성탄절 하루 동안 집을 떠나 힘든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는 분께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장사를 하고 포도원과 과수원 가지치기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중 이 시기 동안 강도 높게 일하기 때문에 성탄절은 몇 주 만에 휴식을 취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 교회 포도원에서 성탄절을 보낸다.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성탄절 중 여덟 번이나 이곳에 왔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마데라 제3와드 회원들에게는 이 일은 El Niño, 즉 아기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이다.

미구엘 차베스 형제는 이 일이 주님께 받는 모든 축복을 돌려 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우린 궁핍한 가족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여는 작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죠.” 또 다른 와드 회원은 그저 이렇게 말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이니까요.”

마데라 제3와드 회원들은 이 특별한 성탄절에 그들이 맡은 포도나무를 가지치고, 싸매고, 묶는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와드가 맡은 옆 포도나무 두 줄에 대한 작업까지 했다. 참으로 왕께 드릴 만한 선물이다.

